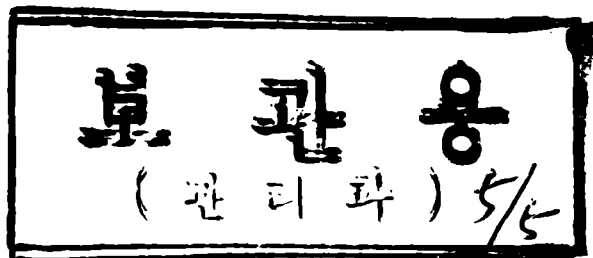


國統 76-1-24

傳統的韓國과 現北韓의 本質에 關한 比較研究

— 南 北韓 住民意識構造 形成要因分析 —



1976. 9.

國土統一院

머 리 말

本研究 報告書는 오늘의 共產北韓을 어제의 傳統的 韓國과 思想, 制度, 人間意識의 3가지 側面에 걸쳐 綜合적으로 比較 分析함으로써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治下에 있는 北韓의 本質과 實相을 正確히 認識하는데 그研究目的을 두고 있다.

오늘날 韓民族이 一時的인 國土分斷에서 乃其也 永久的인 民族分裂의 一大危機狀況에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基本的 動機는 分斷 30餘年 以來 執拗하게 追求해온 金日成權力集團의 民族分裂政策에 있다.

朴正熙大統領閣下の 「平和統一의意志」에 立脚하여 分斷된 祖國의 統一을 平和적으로 成就하기 위해서는 이에 對한 時急한 對策 樹立이 要索된다.

當院 調查研究室 社會文化研究官室은 上記의 趣旨下에서 大韓民國 學術院 院長이며 史學界 泰斗인 斗溪 李丙巖博士를 爲始하여 成均館 大學校 儒學大學長 柳正東博士(韓國哲學專攻), 韓國社會病理學研究所長 白尙昌博士(精神病理學專攻), 明知大學教授 林錫珍博士(西洋哲學 專攻) 西江大學校教授 金炯孝博士(西洋哲學專攻), 韓國科學院 教授 李상수 博士(物理學專攻)와 崔삼근博士(化學專攻)等 斯界의 權威를 모시고 심포지움을 열어 共同으로 研究하였다.

當심포지움은 大韓民國平和統一政策의 理論的 土臺가 될 수 있는 平和統一論理와 思想을 韓民族의 傳統文化 基盤위에서 創造적으로 摸索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1975年 8 月

調查研究室

社會文化 研究官

目 次

1. 問題의 提起	9
2. 主題論文	13
가. 問題의 提	15
나. 傳統的 韓國의 本質과 実相	16
(1) 韓國傳統思想의 本質	16
(가) 概要	16
(나) 傳統韓國의 獨創的 易學論理와 思想體系	19
1) 韓國의 易學論理	19
2) 新羅三國統一思想과 和靜論理	22
가) 概觀	22
나) 新羅統一直後의 社會的 精神的 狀況	23
다) 元曉의 十門和靜思想	25
①和靜論理	25
②和靜思想의 實踐的 適用	27
3) 朝鮮朝의 獨創的 性理學 思想과 論理	28
가) 概觀	28
나) 獨創的 易學論理와 思想體系	29
다) 小結論	35
4) 西勢東漸의 狀況展開와 近代的 3.1 民族精神	35
가) 概觀	35

나) 日帝 植民地政策과 韓民族 文化抹殺	37
다) 3.1 獨立運動과 近代的 民族精神	37
(디) 南北分斷과 基本的 問題點	37
1) 3.1 民族精神과 그 問題點	37
2) 韓民族 知性人의 歷史的 使命	39
3) 根本問題 解決方向	39
가) 傳統思想評價	39
나) 3.1 民族精神과 平和統一理念 定立	41
(2) 制度的側面	45
(가) 概 要	45
(나) 家族制度	46
(다) 國家組織	47
(라) 日帝侵略과 傳統的 韓國制度 破壞	50
(마) 小結論	50
(3) 傳統的 韓國人의 意識 構造	51
(가) 意識形成要因	51
(나) 傳統的 意識構造	52
1) 韓民族의 一般性格	52
2) 韓民族의 最長點	53
3) 八道民의 性格類型	53

(다) 日帝植民地政策의 韓國人 意識에 對한 영향	54
(라) 解放後 分断과 韓國人 意識構造	54
1) 分断直後 全韓國人 意識 實態	54
2) 現時點에 있어서의 南韓人 意識構造	55
다. 現北韓의 本質과 實相	57
(1) 金日成 主體思想의 本質 - 外來共產主義思想	57
(가) 概 要	57
(나) 所謂 金日成 主體思想의 鬭爭論理와 그體系	58
1) 鬭爭 一刃倒 論理	58
가) 主體思想의 論理構造	58
나) 唯物論的 辨證法에 對한 北韓學界 態度	60
다) 批 判	61
2) 金日成 主體思想 體系 - 外來思想 導入 捏造	64
가) 主體思想의 定義	64
나) 主體思想의 內容分析	66
① 自主的 立場	66
② 創造的 立場	67
다) 主體思想의 淵源과 形成 背景 造作	69
3) 小結論	70
(2) 金日成 主體思想과 傳統的 韓國思想과의 關係	70
1) 概 要	70
2) 主體思想과 傳統思想	71

가) 歷史와 思想과의 關係	71
나) 韓國思想史에 對한 唯物論的 解 釋	72
① 古朝鮮時期的 唯物論 發生	72
② 新羅 花郎道 思想에 對한 解 釋	73
③ 朝鮮朝의 思想體系와 唯物論	73
㉠ 概 觀	73
㉡ 徐花潭의 氣一元論에 對한 解 釋	74
㉢ 小 結 論	80
(라) 主體思想에 對한 外國人 學者의 見 解	81
1) 美國 R.A. Scalapino 教授 見 解	81
2) Glenn Paige 教授 見 解	81
3) Blue G. Cumings 見 解	82
4) 日本共產黨員(親土派)의 見 解	83
5) Roy E. T. Kim (韓國以北出身) 教授 見 解	83
(마) 小 結 論	85
(2) 制度的 側面	87
(가) 概 要	87
(나) 家族制度	88
1) 家族制度의 概念과 特徵	88
2) 北韓特有의 核家族構造와 鬭爭意識	89
(다) 國家社會 組織	90
(라) 小 結 論	95

(3) 北韓住民意識 構造	95
(가) 意識形成 要因	95
(나) 住民意識 構造에 對한 理論的 考察	97
1) 特權層	97
2) 勞動黨員層	98
3) 인테리 階層	100
4) 北韓 一般住民層	100
5) 小結論	101
(다) 住民意識 構造에 對한 實証的 分析	101
1) 問題點	101
2) 解決策	102
I. 專門家討論	103
가. 個別質疑回答	105
나. 綜合討議	129
(1) 韓民族의 傳統的 人間中心 思想에 對해	129
(2) 現代世界속에서의 韓國位置와 韓民族의 創造論理 摸索에 對해	133
. 對備策 (案)	145
가. 統一院의 當面課業	147
나. 統一弘報 戰略	147

1 . 問 題 의 提 起

1. 問題의 提起

- 가. 70年代 中盤期에 들어온 以來 南北韓 關係는 軍事 政治的 對決 段階에서 바야흐로 歷史, 思想, 教育 등 社會文化的 對決을 包含하는 段階에로 그 對立 競爭의 幅이 擴大 深化되고 있음.
- 나. 大韓民國은 傳統的 民族文化 意識과 民族史的 正統性을 바탕으로 한 平和의 論理에 立脚하여 南北韓 平和共存과 現實的인 漸進的 統一方案을 提示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은 非民族史的인 鬭爭의 論理에 立脚하여 韓國을 謀略, 中傷할 뿐만 아니라 北侵說을 造作하여 南侵企圖를 糊塗하려고 虛偽的 惡宣傳을 되풀이 하는 一方, 人民革命論을 基底로한 偽裝平和攻勢를 展開하면서 其實 南北對話를 拒否하고 있음.
- 다. 同時에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은 民族思想과 民族史를 階級間的 鬭爭論理에 依해 歪曲解釋하고 소위 金日成 主體思想을 思想的 武器로 하여 北韓住民意識을 條件反射的으로 洗腦함으로써 民族 異質化를 翻策하고 있는바 이것은 單純한 國土의 分斷에서 한 次元 飛躍하여 根源的인 韓民族의 分裂과 兩分을 企圖하는 것임.
- 라. 따라서 1,300年前 以來 單一民族으로 成長해온 오늘의 韓民族은 金日成 少數 權力集團의 執拗한 民族異質化 政策으로 因해 民族分裂의 一大危機狀況에 處하여 있는바 이에 對한 時急한 根本的 對策 樹立이 要請됨.

2 . 主 題 論 文

2. 主題論文 發表

가. 問題의 提

- (1) 北韓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은 外來思想인 맑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北韓에 適用한다는 名分을 내세워 所謂 金日成主體 思想이라는 邪教的 ایده올로기를 造作하고
- (2) 이와 같은 歪曲되고 獨善的인 邪教的 思想을 精神的 武器로 하여 北韓社會를 傳統的 文化의 本質이 完全히 除去된 非韓民族의 社會로 變質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住民의 精神 意識構造마저도 5千年 韓民族의 얼을 完全히 抹殺하고 機械的 이고 戰鬪的인 非正常的 偏執狂的 人間型을 鑄造하고 있음.
- (3) 따라서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은 맑스·레닌主義보다도 더 地獄한 스탈린主義的인 鬪爭一辺倒의 論理에 立脚하여 國難 克服史的 民族史를 韓民族 內部的 階級鬪爭史로, 平和愛好的 傳統思想을 階級鬪爭 思想으로 歪曲解釋하고 其實 民族史를 兩分하고 民族思想을 兩分하고 있는바
- (4) 이것은 國土分斷의 機會를 惡利用하여 單一的인 韓民族을 두개의 民族으로 永久分裂시킴으로써 金日成 1人偶像體制를 保存하고 더 나아가 世襲化하는 金日成 族閥王國을 建設하려는 策動임.

(5) 「知彼知己，百戰百勝」의 孫子兵法은 且置하고서라도 金日成少數權力集團의 私私로운 野慾으로 因한 오늘의 韓民族 分裂의 危機狀況을 克服하기 爲해서는 우선 金日成 主體思想과 金日成 偶像體制의 本質과 正體를 正確히 把握하여야 하고 또한 現時點에 있어서의 北韓住民들의 精神意識 構造를 客觀的이고 科學的으로 診斷하여야 함.

(6) 이와같은 問題를 設定하고 그 接近 分析方法으로서는 比較學的方法論을 活用하여 오늘의 北韓과 過去의 傳統的 韓國을 思想, 制度, 人間意識의 3가지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比較 分析코자 함.

나. 傳統的 韓國의 本質과 實相

(1) 韓國의 傳統思想

(가) 概要

- 5千年 歷史를 가진 韓民族이 밖으로 부터 세차게 挑戰해온 國難을 克服하고 안으로 빛나는 民族文化를 創造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生存하게된 根本的 힘은 바로 獨創的인 韓國的 論理와 思想體系를 基幹으로 하고 있는 民族精神에서 發揚된 것임.
- 韓民族의 5千年 精神史的 脈絡을 概觀해 보면 民族精神

의 始源이 되고있는 檀君精神은 時代史的 背景과 더불어 新羅의 三國統一精神으로 發展하고 이어 近代的인 3.1 民族獨立精神으로 自己展開過程을 이어 오고 있으며 또한 그 民族精神의 基本性格은 閉鎖的이 아니고 世界精神史的 흐름과 緊密하게 相互聯関作用을 展開한 開放性을 基底로 하고 있음.

- 檀君精神은 아득한 古代史에 屬하기 때문에 그 論理와 思想體系가 文獻上으로 알려저 있지 않지만 新羅의 三國統一精神은 諸思想家的 글을 통해서 奧妙한 論理的 體系를 오늘날 認識할 수 있는 바 그 基本 特徵을 보면 當時의 世界的 諸思想(即 東洋思想)을 包越하여 獨創的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開放的이다.
- 그러나 西勢東漸의 時代的背景을 가지고있는 近代的인 3.1 民族精神은 誇誇의 次元에서만 歷史的으로 強調되고 있을뿐 아직도 그 弱點이 創造的으로 定立되고 있지 않다.
- 그러므로 大韓民國의 建國理念으로 되고 있는 3.1 民族精神은 其矣 西歐的 傳統思想과 共產主義思想의 論理에 對해 克服할 수 있는 힘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特히 世界史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韓民族의 統一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도 큰 힘을 發揚하고 있지 못함을 否認할 수 없음.

-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은 北韓地域을 차지하고서 스탈린主義的 鬭爭一辺倒의 論理에 立脚한 소위 金日成 主體思想을 내세워 3.1民族精神을 감히 抹殺하려고 企圖하고 있고 또한 民主主義의 韓國的 土着化에 대해 異見 固執하고 있는 南韓의 一部 極少數 政治人, 宗教人 및 인테리層은 西歐思想體系와 論理에 压倒되어 韓國的 特殊性을 認識함에 있어 皮相的인 傾向이 濃厚하며 그것은 3.1民族精神의 基底에 흐르고 있는 韓國的 روح을 知感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北으로부터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의 反民族的 挑戰을 制压하고, 西歐論理를 克服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一部 極少數의 反政府人士들을 自覺토록 說得하여, 5千萬民族의 힘을 集結시킴으로써 平和統一의 大業을 成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3.1民族精神의 韓國的 روح을 創造的으로 定立하고 體系化해야 함.
- 3.1民族精神의 韓國的 روح은 韓民族의 5千年 精神史的 傳統을 바탕으로 하여 世界史的 主流와 步調를 같이하면서

創造的으로 定立해야⁽¹⁾ 하는바 우선 獨創性을 지니고 있는 韓民族의 傳統的 論理와 思想體系를 科學的으로 分析해 보아야 함.

(나) 傳統韓國의 獨創的 易學論理와 思想體系

1) 韓國的 易學論理

가) 西歐의 古典的 合理主義 및 辨證法 論理와 맑스·레닌主義의 唯物辨證法 論理를 가지고는 東洋의 古典的 周易과 獨創的인 韓國的 易學論理를 도저히 理解할 수 없고 그 真髓를 把握할 수 없음.

나) 比較學的 方法을 適用하여 韓國的 易學論理를 圖式으로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다.⁽²⁾

註(1) 中村元, 韓國人の 思惟方法と 仏教について 新羅仏教研究 金知見 蔡印約編 參照 1973.p.4

* 韓國은 思想的으로 暗中摸索의 狀態에 있으며 美國, 獨逸 日本의 思想的 影響이 強한것 같이, 보이고 있다.

.....韓國은 지금 굉장히 빠른속도로 變化하고 있다.

이 急激한 變化, 여기에서 未來에 向하여 무엇인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2) 咸秉春, 韓國의 政治思想, 東方學志,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纂, 1969.p89

論理構造 說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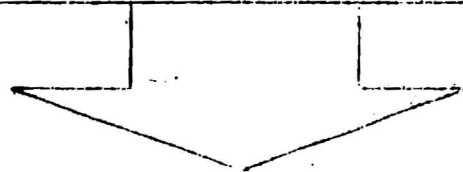
- 여기서 두圓은 分離되어 있으므로 두개를 합치면 $1 + 1 = 2$ 가 된다. 이것이 西洋의 數理論理요 辨證法의 基礎가 되는 兩分論이다.



- 여기서 두圓은 一部分가 서로 重複되어 있다. 여기서 두圓을 합치면 $1 + 1 = 2$ 가 된다는 數式이 成立될 수 없다.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해서 둘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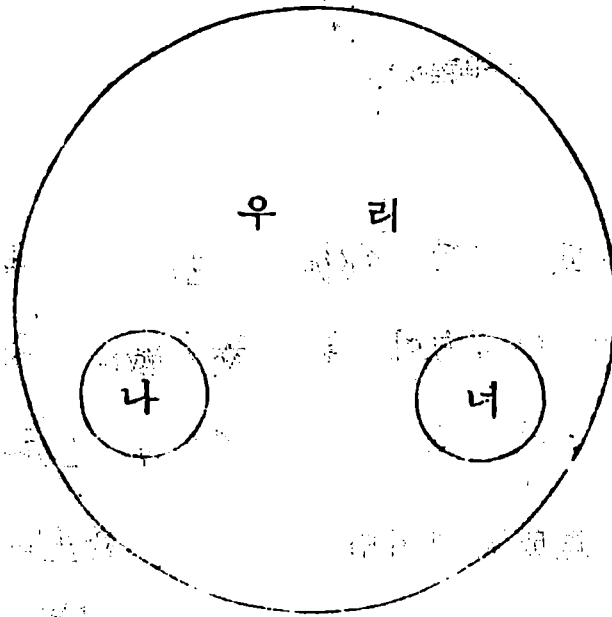
- 여기서 두圓이 完全히 融合, 하나가 되어있다. $1 + 1 = 1$ 이라는 數式이 成立된다.



- 西洋式의 思惟方式은 (1)의 形式論理와 (1)+(3)의 辨證法的 論理가 存在한다.
- 그러나 韓國人의 傳統的 思惟方式은 (2)의 易學的 論理에 立脚하고 있다.
- 西洋式의 眼目에서는 韓國의 思想과 生活樣式을 主로 (1)이 아니면 (3)의 立場에서 理解할 수 밖에 없으므로 過去의 傳統的 韓國의 特殊性을 도저히 理解할 수 없고 오늘의 韓國 政治狀況의 本質도 把握할 수 없다 하겠다.

다) 傳統的 韓國人의 思考속에는 너와 내가 劃然히 兩分되어 있지 않고 "우리"라는 概念속에 나와 너가 沒入되어 있다.

그러나 나와 너는 또한 다르다.



라) 人倫的 側面에서 傳統的 韓國人의 人間關係는 "나와 집과 나라와 天下"가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가 되어 있다.

孝가 天下의 根本이 된다고 해서 父子關係가 君臣關係와 混雜되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요 完全히 分離되어 두개의 別個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君君 臣臣」의 關係이며 「父는 子の天」이라고 해서 子の 人格이 完全히 抹殺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實際問題로서 오히려 子에 대해서 父가 「孝」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마) 傳統的 韓國의 父子關係는 로마의 家父長 制度下의 父子關係下와는 比較도 될 수 없이 情義가 豊富했던 人間關係

이며 어떤 意味에서는 오늘날 所謂 民主主義的이라고 하는 近世 西洋의 父子關係보다도 더 醇厚한 것이었다. 傳統的 韓國의 忠이나 孝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西洋의 人間關係나 意識構造를 그대로 援用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2) 新羅三國統一思想과 和尙論理

가) 概觀

- 世俗五戒로 精神武裝한 花郎徒를 基軸으로 하고 있는 新羅三國統一主體勢力이 聯唐外交 戰略을 驅使하여 武力으로 百濟·高句麗를 滅亡시킨 후 三國統一 大業의 理想을 일단 達成하였지만 同時에 韓土三國民과 異民族인 唐軍事力과의 對決 鬪爭이 展開되어 당시의 現實은 民族史的 一大危機가 造成되었음. (3)
- 麗濟滅亡後、新羅의 對唐外交 關係가 同盟關係로 부터 敵對關係로 轉變하자 新羅는 外勢인 唐軍을 驅逐하기 위해서는 必然코 麗濟 兩國 百姓을 精神的으로 新羅에 歸依토록 하여 三國民의 精神的 統一을 이룩해야 했음.

註 (3) 崔永禧, 우리民族의 國難克服史, 國民倫理教育硏究會
1975. p6.

- 新羅는 內的으로 親唐政治勢力을 肅清하고 文武王 10 年 (670) 부터 7 年間に 걸쳐 唐軍을 몰아내기 위한 치열한 鬪爭을 繼續하여 기어코 승리를 거두었고 더욱이 文武王 15 年에 新羅軍이 唐軍과의 大小 18 戰에서 모두 勝利를 거둔 原動力은 根本적으로 新羅 花郎徒를 中心勢力으로 한 三國民 (더 나아가 말갈족까지 包摂)의 精神的 統一에 있었음. (4)

나) 新羅統一直後의 社会的 精神的 狀況

- 밖으로는 外勢인 唐이 百濟 故土에 熊津都督府, 高句麗 故土에 安東都護府를 設置하고 新羅王을 鷄林都督이라 稱하여 韓半島를 힘으로 完全히 隸屬化하려고 試圖하였고
- 안으로는 聯唐政策과 武力으로 成就된 新羅의 三國統一은 오히려 三國民間의 民族分裂 對立을 深化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5)
- 古朝鮮이 異民族인 漢族에 滅亡된 以來 韓民族은 또다시 異民族인 唐의 隸屬化政策에 屈服될 수도 있는 危機의 狀況에 처하게 되었음 (6)

註(4) 前掲書, 上同

(5) 前掲書, 上同

((6) 前掲書, 上同 p5.

- 한편 三國民間의 思想的 對立이 解消되지 않았기 때문에 精神的 混亂狀況이 惹起되었으며⁽⁷⁾
이와 같은 精神的 分裂現象의 克服은 新羅 三國統一 完成의 決定的 열쇠였음.
- 이와같은 民族史的 一大危機狀況에 즈음하여 新羅의 世界的 思想家인 元曉가 慧星처럼 나타나 「十門和靜論」을 提唱하여 三國民의 精神的 求心點을 이룩하고 三國民의 精神的 統一을 이룩하였음.
- 따라서 元曉의 和靜思想은 新羅三國統一思想의 真髓이며 統一新羅는 勿論이고 高麗時代까지 韓民族의 思想界 精神界를 지배하였음.
- 高麗時代의 精神界 分裂(禪教兩宗對立)은 義天과 知訥이 元曉의 和靜論理에 依해 克服하였으며⁽⁸⁾
이것은 高麗의 對外抗爭의 原動力이었음.

註(7) 金彌模, 新羅元曉의文學觀, 前掲 新羅佛教研究 p126

(8) 朴種鴻著, 韓國思想史, 瑞文堂, 서울 1974. p148 ~ 222

다) 元曉의 十門和靜思想

① 和靜論理

- 元曉는 진정한 意味에 있어서의 平和主義者이며 그의 和靜論理는 바로 對決意識을 克服하려는 平和論理임.
- 和靜論理는 「融二而不一」의 思惟方式에 立脚하고 있으며, (9) 「多樣性 속의 統一」을 成就하는 妙理임.
- 佛敎理論的으로 이야기 하면 元曉思想은 一心의 兩性이 分裂되나 不二로 歸合된다는 原理 (開合과 宗要)로서 獨創的인 論理를 定立한 新羅 佛敎思想임. (10)
(分裂될 수 있는 原理를 提示한 後 統合될 수 있는 原理까지 提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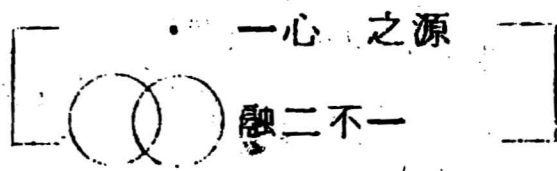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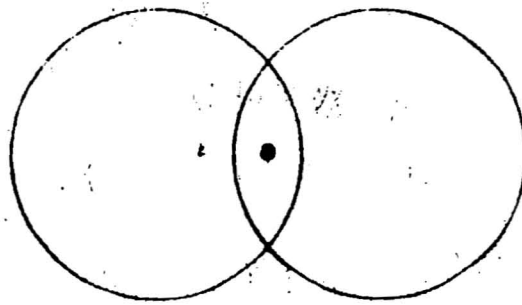
註 (9) 元曉, 金剛三昧經 參照

“夫一心之原，離有無而獨淨，三空之海，融真俗湛然，湛然融二而不一，獨淨離邊而非中，非中而離邊故，不有之法，不即住無，不無之相，不即住有，不一而融二故，非真之事未始為俗，非俗之理，未始為真世，融二而不一故，無立真俗之性，無所不立，梁淨之相，莫不備焉離邊而非中故，有無之法，是非之義，莫不同焉，爾再乃無破而不破，而無不立，可謂無理之至理，不然之大然”

(10) 朴種鴻著, 前掲 韓國思想史 p 85

- 朴鍾鴻博士는 和靜論理에 있어서의 相互 滲透, 相互轉換하는 妙理에 着眼하여 西洋辨証法論理보다 優越한 點이 있음을 指摘하면서 和靜論理란 바로 非合理의 合理, 非論理의 論理라고 表現했음. (11)

- 和靜論理는 圖式으로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음.



- 六堂 崔南善은 印度仏教는 序論的이고 中國仏教는 各論的이고 新羅仏教 (元曉和靜論理) 는 結論的이라고 表現 (12)

× 印度 仏教 탄생
 × 中國 仏教가 多宗派로 分裂
 × 新羅 仏教의 宗派를 統合

- 元曉의 和靜論理는 當時 新羅社會의 獨特한 社會生活 狀況과 그 體驗에서 創造된 論理임.

註 (11) 前掲書, 上同

(12) 李鍾益, 元曉의 生涯와 思想, 韓國思想 叢書, p275

② 和靜思想의 實踐的 適用

- 和靜論理에 立脚하여 三國民間의 對決意識에 依한 鬪爭을 克服함으로써 統一된 偉大한 理想的 平和社會를 建設하는데 그 實踐目標을 두면서
- 新羅 佛國 淨土思想에 立脚한 民衆佛敎를 提唱하고 衆生佛性 不一不二, 一切 衆生 同有佛性이라 하면서 平等社會理想 (諸佛平等猶如虛空)을 내세워 三國民의 精神的 統一을 이룩 (非平等의 平等)
- 自己中心主義的 思考方式과 我執이 바로 紛爭의 要因이라고 說破한 非同非異說을 提唱하고 이와같은 論理에 立脚하여 高句麗, 百濟民의 精神的 風土의 特殊性을 許容하는 同時에 新羅民의 思想的 幅도 넓혀 三國民間의 思想的 意識構造의 差異性을 止揚 克服함으로써 精神的 求心點 (圓融會通의 一心之源에 還歸)을 形成하여 真正한 統一을 이룩하려 했음.
- 이와 같은 和靜思想은 三國民의 精神的 統一을 指向한 包括的 主體性을 確立하고 (13) 新羅社會의 一大改革을 가져온 思想 (14) 이라고 말함.

註 (13) 韓基斗 著, 韓國佛敎思想 p47 ~ 48

(14) 李基白西江大教授主張, 前揭新羅佛敎研究, p126

③ 小 結 論

○ 和靜思想의 本質은 民族相互間의 和解를 가져온 論理임.

× 矛盾相爭者 有年，爰乃暁公，

挺生羅代，和百家之異靜，

合二門之同歸，

(東 文選 第 27 卷 官誥)

○ 그러나 外勢(唐軍)에 抗爭하여 驅逐한 側面에서 볼때
무서운 動的인 힘을 發揮했음.

○ 和靜思想은 動靜의 兩要素를 모두 包含

3) 朝鮮朝의 獨創的 性理學 思想과 論理

가) 概 觀

○ 高麗가 滅亡한 後 朝鮮朝가 建國됨에 따라 國家統合
理念도 佛敎的 護國思想에서 儒敎的인 性理學的인 統治原
理로 轉換되었음.

○ 近世朝鮮社會의 指導理念으로 採択된 性理學은 비록 中
國으로 부터 傳播受容된 思想이지만 社會發展과 더불어
獨創的으로 理論이 開發되고 發展되었으며 民族文化의
原型을 創造한 原理임.

- 朝鮮朝의 世界的 思想家로서는 退溪先生을 들 수 있고 偉大한 政治哲學家로서는 栗谷先生을 들 수 있으며 奇異한 哲人으로서는 徐花潭을 들 수 있음.

나) 獨創的 易學論理와 思想體系

① 朝鮮朝 易論理의 原型

- 朝鮮朝의 易論理는 그 原型은 中國으로 부터 傳播受容받은 周易을 土台로 하고 있지만 獨創的으로 發展시켰음.
- 周易이란 東洋의 文化와 歷史와 哲學思想에서 根幹이 되어 왔으며 宇宙 自然觀 人倫觀을 모두 包含하고 있으며 東洋的 數理論理와 事物論理에 同時에 立脚하여 生成 發展 變化의 原理를 說明하는 東洋學問의 眞髓임.
- 中國 自體에서도 周易에 대한 解釋과 理解가 時代狀況에 따라 差異가 나고 있으며 特히 朝鮮朝에 傳播된 周易은 宋代의 朱子學的 解釋을 基本으로 하고 있음.
- 現代의 大多數 學者들은 周易을 現代의 用語로 表現하여 東洋辨證法이라고 稱하면서 西洋의 辨證法과의 差異點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15)

註 (15) 韓太壽著, 生命史觀의 政治哲學, 光明出版社,

1975, 서울, pp218 ~ 225

	西 洋 辨 証 法	易 經
論 理 始 發	○ 有와 無의 2元關係는 對立 鬭爭을 通한 矛盾統一性 의 運動法測에 立脚	○ 有와 無의 2元關係는 調和的인 矛盾 和合性 의 生成變化 原理에 立脚
自然觀	○ 內的存在와 外的現象의 對立關係는 서로 否定하 는 二律背反이며 飛躍的 으로 止揚되는 關係임.	○ 陰氣와 陽氣의 對立 關係는 서로 肯定하는 二律對峙이며 서로 補 充하는 關係임.
人倫觀	○ 人間關係를 動態的으로 把握하여 男女平等의 核家族制를 社會制度의 基本으로 삼고 있음.	○ 人間關係를 調和的 (或은 靜態的)으로 把 握하여 大家族制를 社會制度의 基本으로 삼고 있음.
戰爭觀	○ 戰爭을 肯定으로 認定하 면서 不義의 戰爭과 正 義의 戰爭으로 区分하여 合理化 시킴.	○ 戰爭을 否定하면서 무조건 나쁜것이라고 생각함. ※兵不祥器 (老子)

② 朝鮮朝의 易論理

- 朝鮮朝의 易論理는 宋代 朱子の 易經解釋을 土台로 하여 獨創的으로 發展시켰음. (16)

周易 發展 過程	
伏羲	八卦를 그리고
孔子	太極을論하고
朱子	太極은 바로 理라고 說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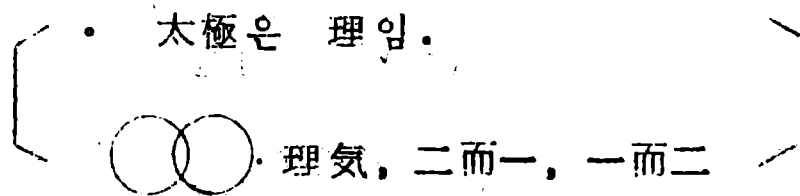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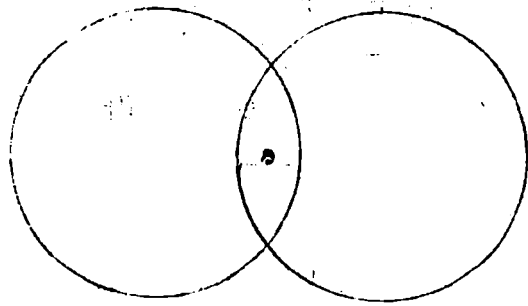
• 理氣問題를 朱子가 本格的으로 提起했으나 中國에서는 理氣問題에 對한 研究가 깊이 進展되지 못하고 말았음.

- 朝鮮朝의 性理學이 朱子가 提起한 理氣說을 中心으로 하여 獨創的으로 發展되었는바 大成시킨 思想家는 바로 退溪先生임. (17)

註 (16) 周易伝義大全, 韓國思想研究所 參照

(17) 柳正東 著, 退溪의 生涯와 思想研究 參照

- 退溪先生 (60 才) 은 理氣說에 對해 奇高峯 (35 才) 의 反論에 부딪쳐 이로부터 7 年後에 理氣互發論을 定立
 x 7 年間の 「退溪 - 高峰理氣論辨」은 世界 哲學史上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哲學的 探究라고 朴鍾鴻 博士는 指摘
- 理氣說에 立脚한 退溪先生의 易論理를 圖式으로 說明 하면 다음과 같음. (18)



註 (18) 退溪先生文集 卷四 - 雜著, 非理氣為一物辯證, 參照

“理氣, 二而一, 一而二”.

“明道曰, 形而上為道, 形而上為器, 須著如此說, 器亦道, 道亦器

○ 退溪先生 統集卷八參照

“理外無氣, 氣外無理, 固不可斯須離也, 而其分則亦不可相, 紊而無其別也”

○ 根源的인 易論理에 있어서는 退溪와 栗谷과 花潭이 모두 意見一致하고 있음. (19)

그러나 단지 宇宙 自然觀을 두고 理先이나, 氣先이나 하고 解釈하는 立場에 있어서 意見의 差異를 表明했음 (20)

x 朝鮮朝의 타락한 一部 政治家는 이와 같은 哲學的 解釈 差異를 利用하여 四色黨爭의 이데올로기의 名分으로 活用했음.

退溪	理發氣隨之 氣發 理乘之說 (理氣 互發論)
栗谷	氣發 理乘之說 (理通氣局論)
花潭	氣一元論 (氣不滅論)

註 (19) 栗谷 全書 卷十 參照 (栗谷의 思惟論理)

“既非二物，又非一物，非一物，故一而二，非二物，故二而不也，非一物者何謂也，理氣雖相離不得，而妙合之中，理自理氣自氣，不相扶雜，故非一物也，非二物者何謂也，雖曰理自理氣自氣，而渾淪無間，無先後無離合，不見其為二物，故非二物也，是故動靜無端，陰陽無始，理無始，故氣亦無始也”

○ 花潭集 卷二 參照 (花潭의 思惟論理)

“氣之源，其初一也，既曰氣，便涵二，太虛為一，其中涵二，既二也，斯不能無闢闢無動靜無生克也，原其所以能闢闢能動靜能生克者，而名之曰太極，氣外無理，理者，氣之宰也，所謂宰，非自外來而宰之，指其氣之用事能不失所以然之正者，而謂之宰” (11)

(20) 玄相允著，朝鮮儒學史

③ 性理学的 政治思想 (21)

<p>退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王道政治의 理想을 賢人政治論 (Platon의 哲人政治論과 類似)에 두고, 天人合一의 敬思想을 提唱하였으며 이로써 党争政治를 克服하고 乱世의 어지러움을 克服하려 했음.
<p>栗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退溪가 哲学思想에 置重한데 비해 栗谷은 現實政治를 重視하여 富国 強兵策을 主張 ○ 務実更張論 (維新政治論과 類似)과 10 万大軍 養成策을 提唱하고 四色党派性을 超越하여 總和를 主張
<p>花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花潭은 宇宙 自然觀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隱遁生活을 主로 하였으며 ○ 人倫思想에 있어서는 亦是 退溪의 敬思想을 認定하고 事物認識 方法으로서 主靜의 思索方法을 主張 ○ 政治哲学으로서는 民本王道政治를 主張하고 儒敎의 古法에 따라 實質을 崇高할 것을 強調하고 虛礼虛飾을 批判했음.

註(21) 前掲書, 上同

다) 小結論

- 性理学的 思想을 統治理念으로 한 朝鮮朝의 社会的 發展 主流는 对內的으로 靜態的 性格을 띠었으며
- 对外的으로도 事大交隣 外交를 내세워 靜態的 姿勢를 取한 傾向이 濃厚
- 兩大胡亂을 당한後 自我反省을 하여 宋時烈 等이 北闕論을 提唱하여 動的姿勢를 取하기도 하고 또 壬辰 倭亂의 禍를 입은 後에야 自我省察을 통해 実學運動을 展開하기도 했음 (22)

4) 西勢東漸의 狀況展開와 近代의 3.1民族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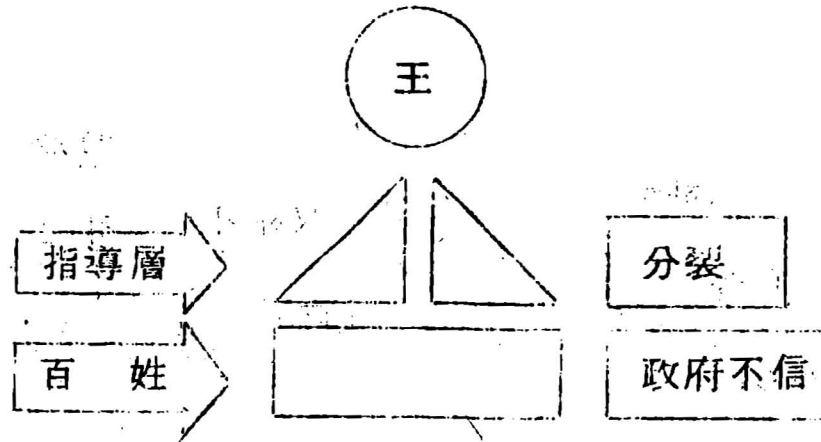
가) 概 觀

- 19世紀 西勢東漸의 近代의 狀況에 處하여 韓民族의 指導層 엘리트들은 西歐勢力의 本質과 実相을 把握함에 있어서 衛正斥邪派와 開化派로 兩分되어 國論이 分裂되었음. (23)
- 同時에 밑으로부터 官吏들의 不正腐敗 除去와 改革을 부르짖는 東學徒들을 先頭로한 農民들의 要求에 대해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하고 오히려 一部の 執權層은 自己一身의 安逸을 위해 外勢의 힘을 빌려 農民들의 要求를 壓殺하려 하있음.

註(22) 李瑄根, 韓國史參照

(23)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 參照

- 이처럼 指導層엘리트가 分裂되고 政府와 百姓間에 意見이 相通되지 않는 지극히 不祥스러운 社会的 狀態가 일어남에 따라 韓民族은 求心力을 잃어버리고 民族의 總力을 集結시키지 못했음.



- 이와같은 狀況속에서 西歐의 基督教文化가 傳播되기 始作하여 朝鮮朝의 儒敎文化를 基底로 부터 否定하기 始作하였음. (24)
- 이에 對해 朝鮮朝는 歷史的인 時代的 課題를 解決하 지 못하고 西勢東漸의 새로운 狀況에 對한 適應力을 喪失
- 이를 契機로 하여 脫亞論을 (25) 부르짖고 재빨리 西歐化한 日本이 國際的 力關係를 利用하여 韓半島에 侵略의 魔手를 뻗치기 시작, 드디어 1910年에 朝鮮朝를 日本에 合邦시키고 말았음.

註(24) 李瑄根, 前掲 韓國史 參照

(25) 日本 明治維新 初期, 福沢諭吉가 脫亞論을 부르짖었으며, (25) 日本近代化의 先驅者임.

나) 日帝 植民地 政策과 韓民族 文化 抹殺

- 日帝는 植民地 近代化論을 내세워 韓民族의 傳統文化를 基底로 부터 破壞시키고 해괴망칙한 內鮮一體論과 創始改名論을 提示하여 韓民族의 5千年 歷史와 固有精神을 抹殺하려 했음.
- 이리하여 36年間의 日帝統治期間을 거치는 사이에 5千年의 歷史를 가지고 내려온 韓民族의 學統은 日帝의 強壓的인 禁忌措置로 因해 地下로 숨어버리고 事實上 斷絶된 處地에 놓이게 되었음.

다) 3.1 獨立運動과 近代的 民族精神

- 5千年 歷史를 가진 韓民族은 1919年 3月1日 階層宗派, 男女老少의 區別을 超越하여 온겨레가 하나로써 뭉쳐 日帝 侵略에 抗爭 하였음.
- 이와같은 3.1 民族獨立運動속에서 바야흐로 韓民族의 近代的 民族精神은 自己展開를 發揚한 것이며 이로서 19世紀 西勢東漸의 狀況展開에 따라 思想的으로 精神的으로 分裂된 韓民族은 精神的 求心點을 되찾은 것임⁽²⁶⁾

(다) 南北分斷과 基本的 問題點

1) 3.1 民族精神과 그 問題點

가) 韓民族의 5千年 學統 未回復

註(26) 千寬宇, 前揭 韓國史의 再發見 參照

- 日帝의 36年間 侵略政策으로 因해 5千年歷史를 가진 韓民族의 學統은 事實上 斷絶되어 버린 如地에 빠져있고
- 또한 解放이 되었어도 南北分斷으로 말미암아 北쪽에서는 스탈린主義的 共產主義 思潮가 南쪽에서는 美國式 民主主義 思潮가 滔滔하게 밀어 닦쳤으며
- 따라서 오늘에 와서도 韓民族의 學統은 回復되지 않고 있음.

나)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의 挑戰

- 北韓地域을 強占하고있는 金日成權力集團은 스탈린主義的 共產主義 理論에 바탕을 둔 所謂 金日成 主體思想을 내세워 1,400萬 北韓住民을 對象으로 하여 3.1民族精神을 抹殺하려고 試圖하고 있음.
- 이와 같은 金日成의 反民族的行爲는 韓民族을 精神的으로 兩分하려는 策動임.

다) 現代 韓國의 根本 問題點

- 韓民族의 5千年 學統이 未回復됨에 따라 오늘날 韓國學界와 知性人들은 3.1民族精神의 韓國的 roots를 創造的으로 定立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民族精神과 5千年 韓國的 學統과의 理論的 連結 作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實情임. (27)

註 (27) 金炯孝, 韓國思想과 護國精神, 國民倫理教育硏究會, 1975.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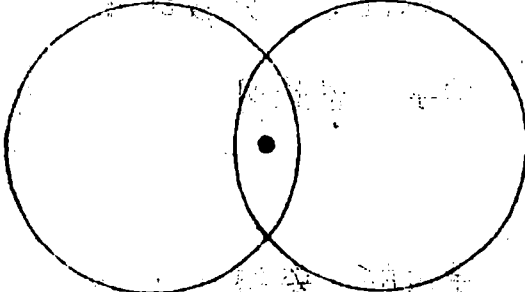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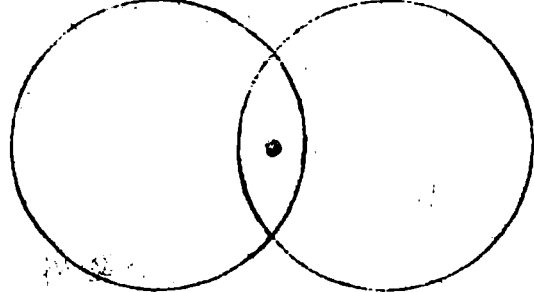
○ 더욱이 金日成權力集團의 思想的 挑戰과 民族 兩分 策動으로 因해 韓民族 分裂의 危機 狀況이 到來하고 있음.

2) 韓民族 知性人의 歷史的 使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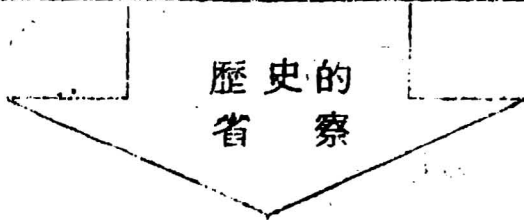
○ 韓國民 知性人은 누구를 莫論하고 모두 5千年 韓國 的 學統을 土台로 하여 3.1民族精神을 思想的으로 體系化하여 金日成權力集團의 思想的 挑戰을 克服하고 南韓 內部的 一部 精神的인 事大主義的 西歐追從者들을 說得함으로써 平和統一의 大業成就에 寄與할 莫重한 使命을 갖고 있음.

3) 根本問題 解決方向

가) 傳統思想 評價

	仏教的 和靜思想	儒教性理學的思想
論理構造	 <p>① 融二不一 ○ 一心이 中心點</p>	 <p>① 二而一, 一而二 ○ 太極이 中心點</p>

	仏教的 和靜思想	儒教性理學的思想
實踐的 適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動靜 兩要素의 힘을 모두 發揮 ○ 對內的으로 民族間의 和解 이룩 ○ 對外的으로 外勢 (唐)에 抗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靜態的으로 기우러졌음. ○ 對內的으로 朝鮮朝의 5百年 維持에 寄與 ○ 對外的으로 事大文隣 外交 採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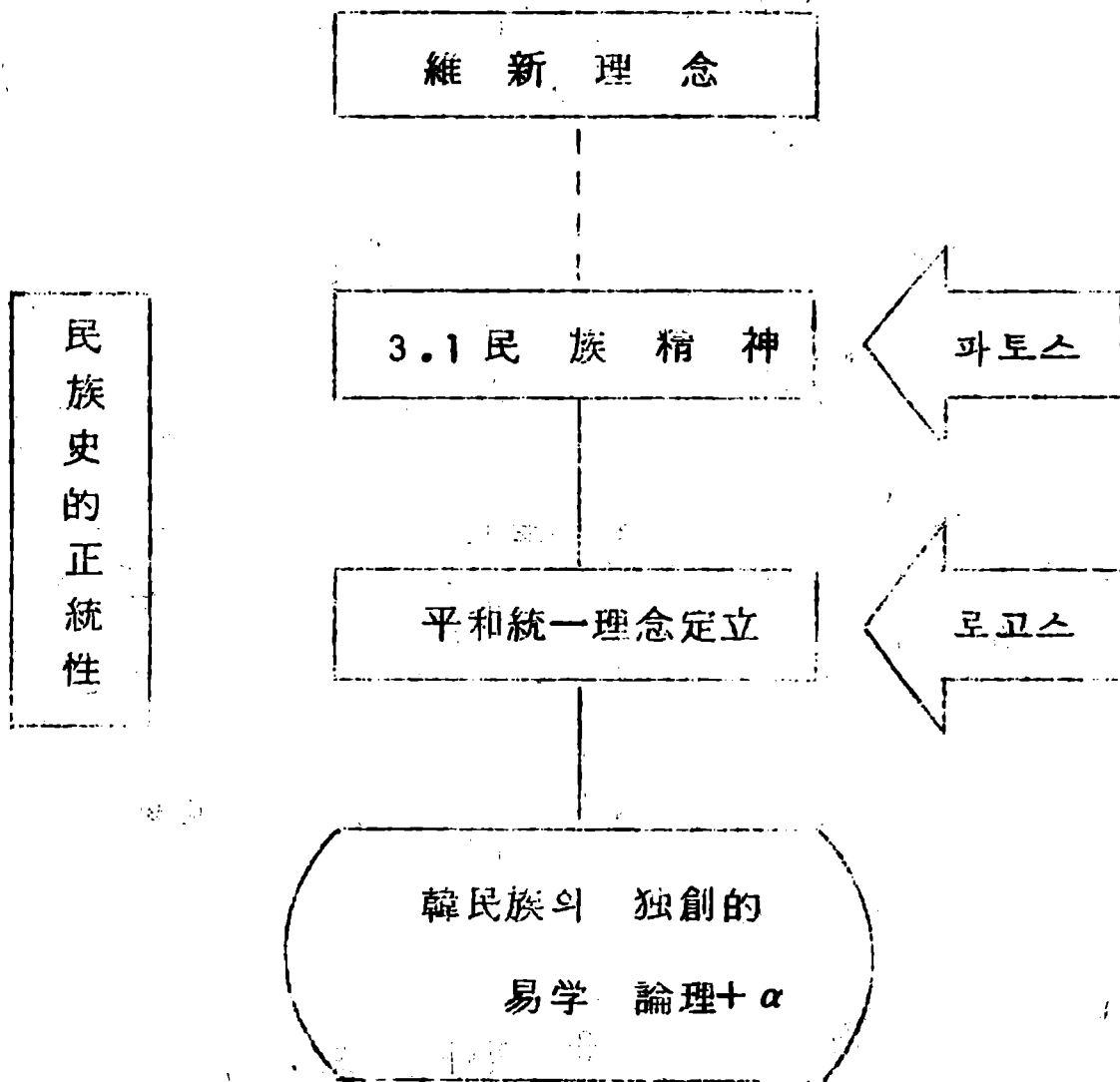


- 儒教性理學의 政治 理念을 가진 朝鮮朝가 19世紀 西勢東漸의 歷史的 狀況을 克服하지 못한 根本的 要因은 朝鮮朝 性理學 思想이 動的 힘을 發揮하지 못했기 때문임.
- 事大交隣外交라는 靜態的 姿勢에서 果敢하게 脫皮하여 對外的으로 動態的이고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外交姿勢를 取하였더라면 西勢東漸의 國際的 權力政治의 挑戰을 克服할 수도 있었을 것임.

- 勿論 對內的으로도 動態的 姿勢를 取하여 果敢하게 改革政治를 實施하였더라면 民族의 總力을 集結시킬 수도 있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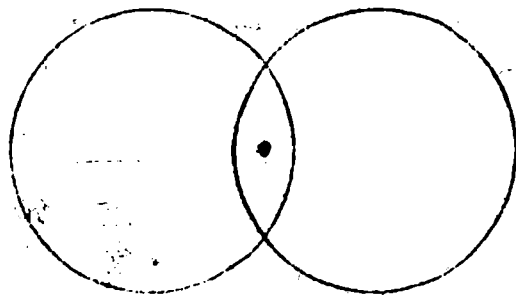
나) 3.1 民族精神과 平和統一 理念 定立

① 基本方向



○ α = 西歐的動的要素

② 平和統一 理念



○ 3.1 民族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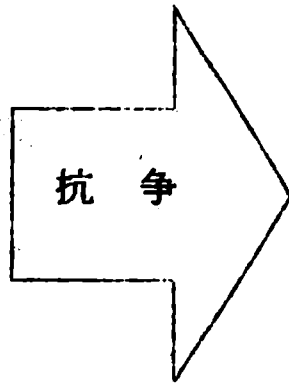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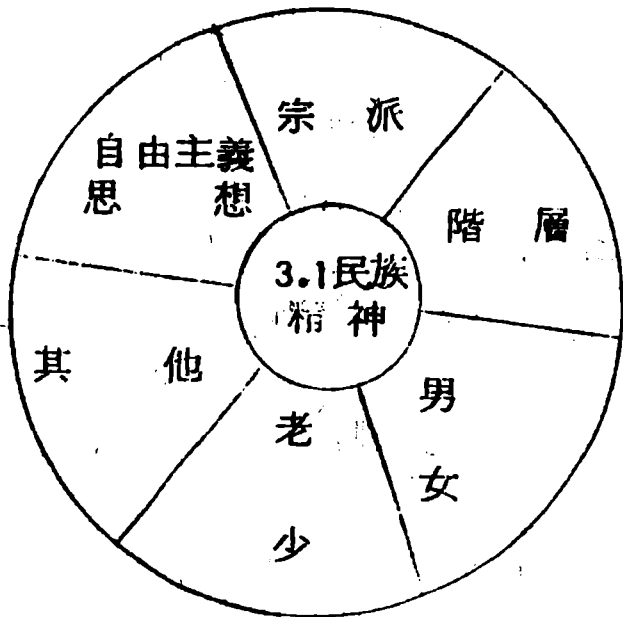


韓民族의 獨創的 易學論理

- 平和統一理念과 思想體系는 動靜의 兩要素를 모두 包含해야 하며
- 北韓 共產體制를 暫定的으로 認定함으로써 南北韓 平和共存을 이룩하고 南北韓 5千萬이 合心할 수 있는 精神的 求心點을 찾아야 함.
- 이와 같은 平和統一理念이 定立되고 實踐되면 邪教的 金日成 主體思想은 自然 消滅될 것임.

③ 韓國 内部 國民總和 問題

㉑ 3.1民族精神 (過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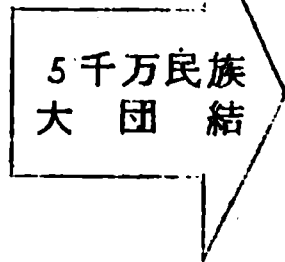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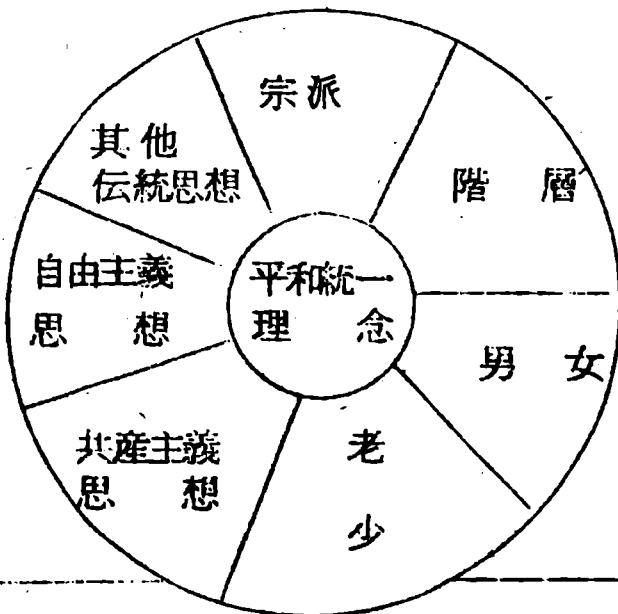


敵 概 念	
日	帝
侵	略

- 宗派 = 天道教, 基督教, 仙教
- 階層 = 農民, 勞動者, 商人, 學生

創造論理
定 立 (28)

㉒ 平和統一理念 (未來)



敵 概 念	
金極	權 民
日少	力 族
成數	集 分
	團 裂

× 溫古知新의 原理에 立脚

註 (28) 朴鍾鴻博士는 오늘의 韓民族 問題의 南北統一을 解決하는 論理로서 創造의 論理 定立 主張

小 結 論

- 平和統一理念이 定立되고 實踐되면 오늘날 韓國內部の 一部 極少數 政治人, 宗教人 等の 反政府 運動은 源泉的으로 消滅될 것이며
- 金日成 權力集團의 民族分裂 政策도 破에 부닥 치게 되고 金日成主體思想도 自然 消滅되든가 變質될것임.
- 大韓民國의 主導下에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 것임.

(2) 制度的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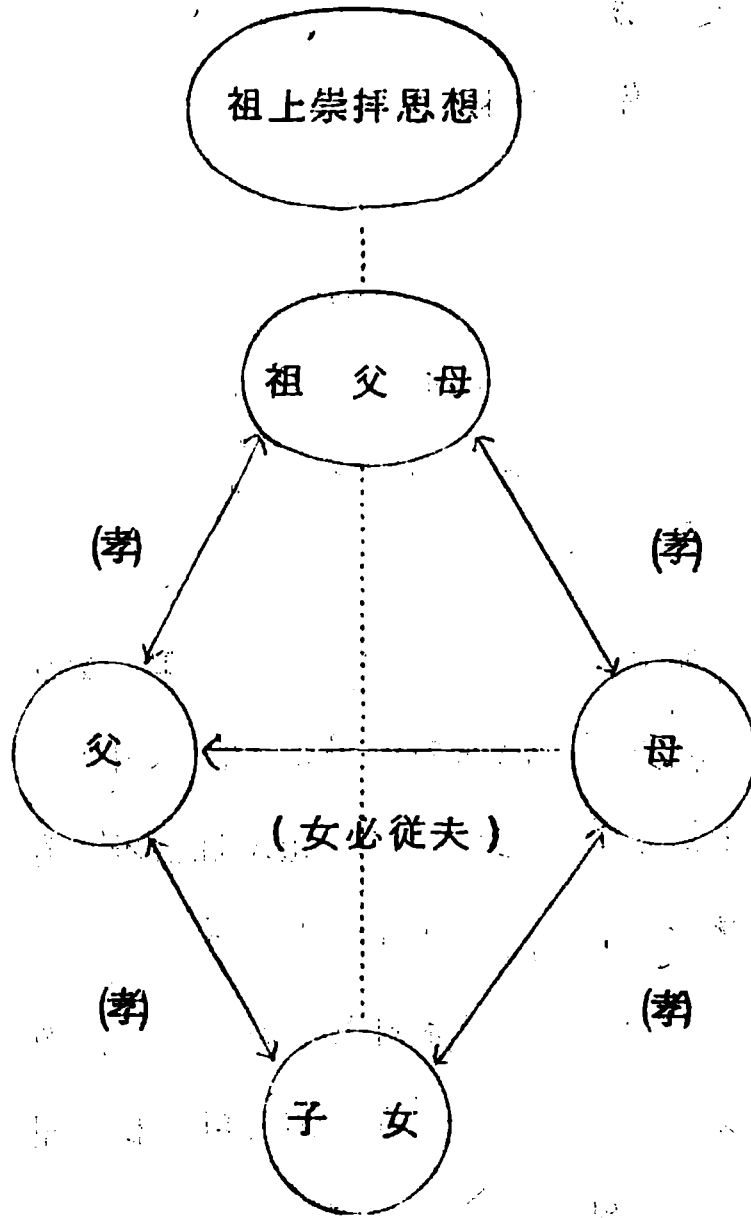
(가) 概 要

- 傳統的 韓國의 文化는 혈연적家族 中心 文化를 基軸으로 하고 있으며 家族生活이 거의 生活의 全體를 차지하고 있었고 家族關係 以外에는 別다른 道德이 存在하지 않았음.
- 近世 韓國社會 構造의 基本單位가 되었던 父系血緣 中心의 大家族制度는 三國時代에 이미 그 基本들이 形成되었으며 高麗 朝鮮時代에 이르러 거의 完璧한 發展을 하였음 (29).
- 化家爲國의 觀念에서 明白히 나타나고 있듯이 傳統的 韓國에서는 家族의 連長이 바로 國家이며 家族과 國家를 媒介하는 中間單位인 西歐的 市民社會가 存在하지 않았음.
- 따라서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것은 家族을 다스리는 原理가 바로 國家를 統治하는 原理에로 까지 連長되는 것을 말하며 忠孝思想도 家族道德의 根本인 孝가 바로 國家論理인 忠의 概念에 直結되고 있음을 表現하고 있음

註 (29) 李光奎, 家族構造와 人性에 關한 問題, 서울大學校 論文集, 1973.2 月 p277

(나) 家族制度

- 傳統的 韓國의 家族制度는 祖上崇拜思想을 바탕으로 한 父系血緣中心의 大家族主義를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戶主相統制에 立脚한 父子關係가 基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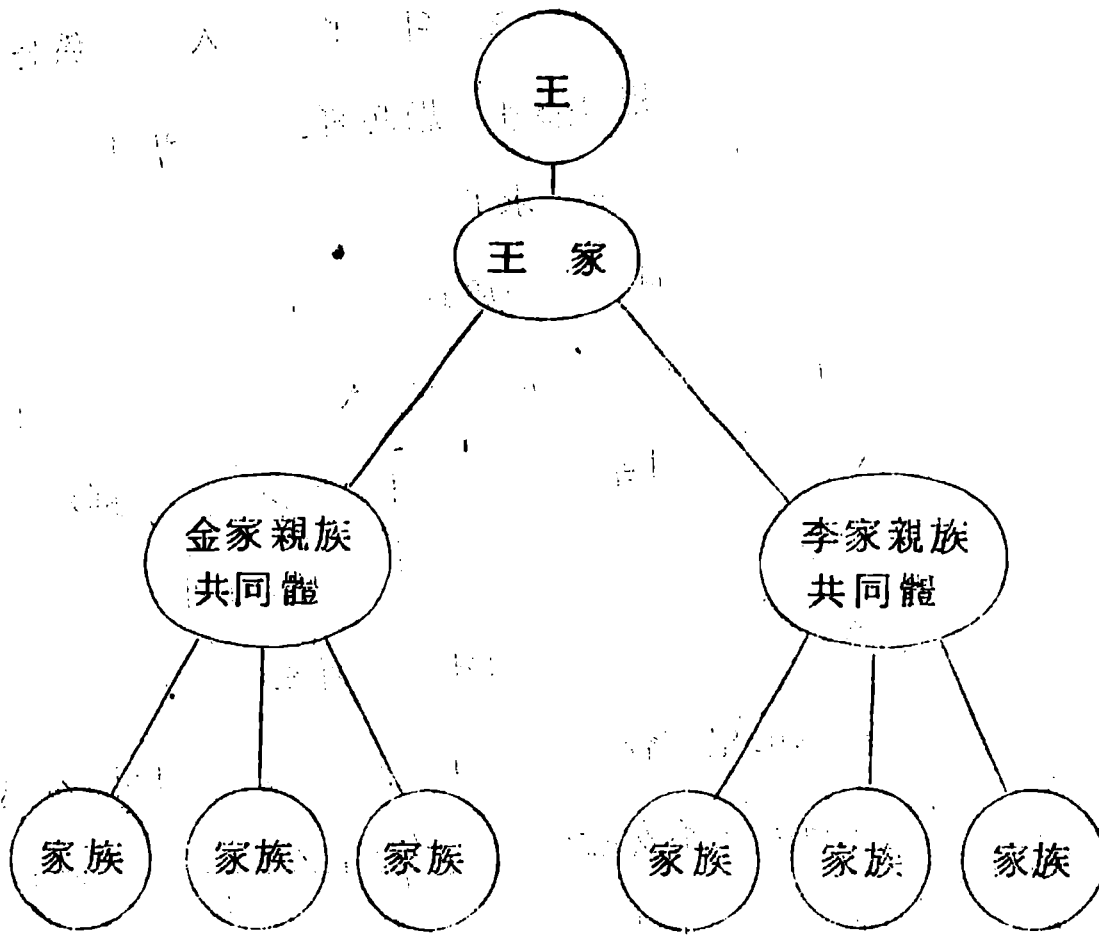
- 大家族 構成 要員의 相互 人間關係를 보면 祖父의 權威가 祖上崇拜 思想에 立脚하여 圧倒的 作用을 하며 또한 精神的 求心點 機能을 하기 때문에 大家族制를 運營해 나가는 原理는 저절로 調和論理가 適用됨.
- 따라서 家族構成員의 人格과 意識構造는 平和指向的이고 安定을 이루고 있으며 多少 非合理性이 짙은 情意的 人間型을 形成하게 되며 同時에 父母 依存的인 從屬 的인 性格을 지니게 되기도 함.
現代的인 合理的 自我中心 意識이나 對立 鬭爭的 性格, 그리고 不安意識 等은 存在하지않기 때문에 靜態的인 特徵을 나타나게 됨.

(다) 國家組織

- 天命說에 立脚하여 王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며 「하늘의 命」을 받고 百姓을 다스리는 聖人을 말하며 (30)
- 臣下는 하늘을 尊重하듯이 王에게 忠誠해야 하며 忠은 바로 國家倫理의 根本이 되는 것으로서 家族倫理인 孝概念에 始源을 두고 있음.
- 만일 忠孝의 兩個概念이 相衝을 일으킬 때는 忠을 扞하고 孝를 뒤로 미루어야 함.
- 이와 같은 特徵을 지닌 國家組織을 圖式으로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음.

註(30) 中村元, 中國의 思惟方法 參照

1) 橫的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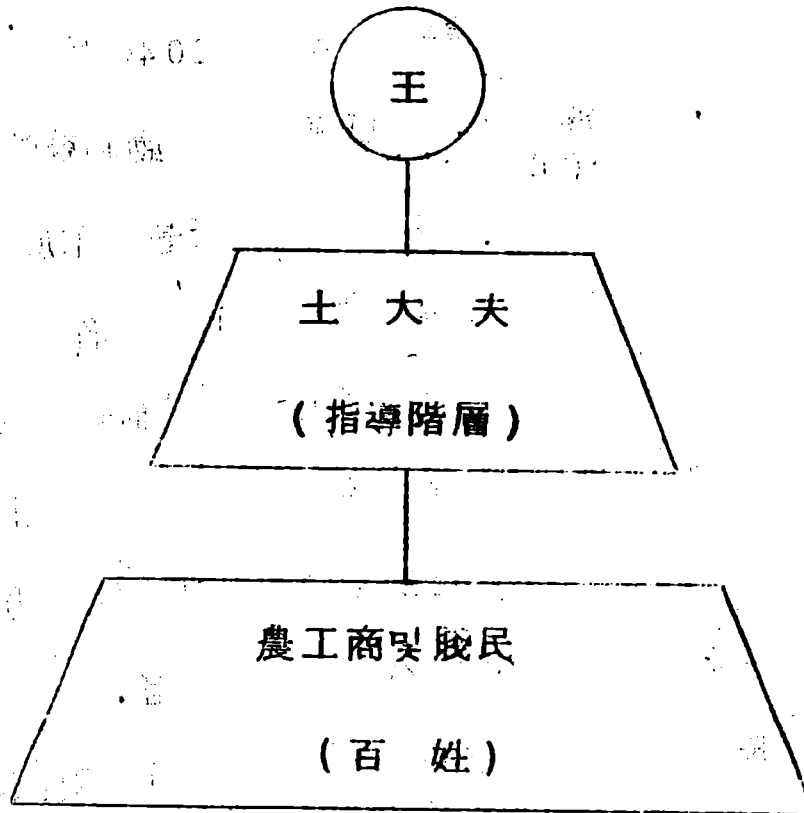


- 王에 對한 忠誠과 親族 共同體意識은 強하나 全體 社会的 共同體 意識은 微弱함.

- 李朝 中期에 이르러 全社会的 共同體 意識을 強化하기 爲해 鄉約制度를 設置 (조광조)

× 德業相隣, 過失相糾, 禮俗相交, 荒亂相恤

2) 從的構造(身分秩序制)



- 封建的 身分秩序制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世襲制를 바탕으로 하여 階層間的 移動 不在

- 儒教的 政治理念의 理想目標은 民本王道 政治에 있는 바 이것은 王과 百姓間的 斷切 關係에서 일어나는 矛盾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天地 運行의 法則인 陰陽論理(周易)에 立脚하고 있음.

(라) 日帝侵略과 傳統的 韓國制度 破壞

- 日帝는 植民地 近代化論을 내세워 1910年~1918(年)에 이르는 8年餘의 期間, 2040万圓의 莫大한 經費 및 3,400餘名の 常任職員을 動員하여 所謂 土地調査事業을 完了하고⁽³¹⁾ 朝鮮朝 農業經濟를 基底로 부터 強制 轉換시켜 日本經濟에의 隸屬化 第1次 作業을 完了하고
- 이와 같은 社会經濟的 大措置를 통해 朝鮮朝 國家社会 體制를 解體하기 始作하였으며 5千年의 長久한 傳統을 통해 形成된 親族 共同體의 結束力, 歸屬感 및 親和力을 破壞하는데에 最力點을 두었음.
- 特히 日帝는 對日敵對 感情이 要因이 되어 韓民族의 親族 共同體의 團結意識이 全體社会 共同體 意識으로 急進하여 民族 意識으로 昇華함으로써 全體 韓民族이 하나로 뭉쳐 日本에 抗爭할 것을 두려워 했음.
- 이리하여 精神的 求心力이 排除된 個人利己主義에 바탕을 둔 植民地的 近代制度를 移植하는데 總力을 기울였음.

(마) 小結論

- 韓國社会는 20世紀初 日帝의 植民地 政策에 依해 近世 朝鮮朝社会가 거의 完全 解體되어 事實上 日本社会에 隸屬된 狀態에서 解放을 맞았으며, 그러나 解放된 同時 他律的으로 南北 分斷을 가져왔음.

註(31) 劉潭, 日帝의 韓國農民收奪, 韓國思想, 第八輯, 韓國思想研究会, 1966.p94

- 이리하여 南韓에서는 美国式 民主主義를 모델로 한 近代 民主體制가 形成되었고 北韓에서는 苏联式 共產主義를 모델로한 共產體制가 이루어 졌음.
- 이러한 過程을 통해 南北 共히 文化樣式, 生活樣式의 轉換이 始作되었고 分斷 30 餘年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南北韓의 人間型 조차 相互 異質化 되기 始作 했음.

(3) 傳統的 韓國民의 意識構造

(가) 意識 形成 要因

- 傳統的 韓國意識을 形成함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作用한 要素는 思想教育, 制度, 風土의 3 가지 變數임.
- 特히 風土的 要因을 살펴보면 韓半島는 山이 많고 四季 節의 氣候變化가 뚜렷하고 水質이 맑은 自然的 條件을 具備하고 있기 때문에 古來로 부터 風水地理說이 크게 發達되었으며
- 이 風水地理說이 잘 說明하고 있듯이 山勢, 水質, 氣候 等の 自然的 條件 差異로 因해 八道民間의 意識構造가 多少 差異性을 가지고 있으며 (32)

註 (32) 尹泰林著,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參照

- 交通이 發達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無意識 領域에서 地域感情이 크고 強하게 存在하는 理由는 上記의 原因 때문임.

나) 傳統的 意識構造 (33)

1) 韓民族의 一般性格

一般特性 (七〇個)

家族主義, 依賴心, 自尊心, 好讓不爭, 老人的, 樂天的, 哀愁的, 外面치례, 祖先崇拜, 寡欲, 寬容, 大義名分, 風流的, 遊衣徒食, 安貧樂道, 忠節孝烈, 溫柔着實, 禮儀的, 潔白, 保守的, 平和的, 威嚴性, 直觀的, 臨想的, 事大主義, 中華思想, 憂鬱性, 感激性, 시기질투, 迷信的, 白色愛好, 人道主義, 頑強殘忍, 黨爭內紛, 公德心不足, 團結力不足, 享樂主義, 名譽心, 兩班的, 服從心, 勇敢, 孝誠, 利己的, 連綿性, 自律性, 愛國心, 自然的, 惰怠緩慢, 非社交的, 排他的, 鄉土愛, 偏狹性, 現實的, 創造性, 迷信的, 宿命論的運命論者, 慈愛心, 體面尊重, 誇張性, 虛榮心, 尚武, 文弱, 悠長暢氣, 藝術文學의 長技, 機智, 細心思慮, 進取的, 持久性, 自由平等

註 (33) 金泰午著, 民族心理学 p342 ~ 358

長 点	連綿性，持久性，創造性，自律性，道義性，剛氣勇斷， 温厚着実，礼儀東方，愛国至誠，平和愛好
短 点	事大思想，形式主義，依賴心，虛榮心，保守的，誇張癖， 偏狹性，責任感薄弱，謀略陰計，党争内紛

2) 韓民族의 最長点

愛国，潔白，礼儀，正義，創造，平和，純樸性

3) 8道民의 性格類型

道民別	地方別	性格類型	生活類型	八道習性
慶尙道民	沈着，実行 剛氣 果斷	防禦型	理論型	泰山喬嶽
平安 "	快活 元氣 偏急 勇猛	運動型	權力型	青山猛虎
咸鏡 "	頑強 率直 勇往 邁進	進攻型	權力型	泥田鬪狗
江原 "	温厚 着実 慎重 平靜	思慮型	宗教型	岩下老仙
全羅 "	細心 周密 優柔 不斷	"	理論型	風前細柳
京畿 "	社交 多能 輕佻 浮薄	混合型	審美型	鏡中美人
忠清 "	温厚 明朗 安逸 平穩	無力型	社會型	清風明月
黃海 "	忍苦 節制 根氣 持續	強健型	經濟型	石田耕牛

(다) 日帝植民地 政策의 韓國人意識에 대한 영향 (34)

- 日帝는 韓國史, 韓國思想 및 韓國倫理를 歪曲解釋하여 統一新羅 以後 高麗時代에 이르러 對外 抗爭속에서 굳게 形成된 自主的인 民族意識과 沒我的 團結力을 除去하는데 最力點을 두었음.
- 韓國史의 本質이 他律性, 停滯性이라고 主張한 半島的 性格論을 理論的으로 내세워 韓民族의 主體性을 否定하는가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一般的 政治現象인 朝鮮朝 士林階層의 党派政治事例를 들어 全體 韓國民의 先天的 民族性으로 歪曲 解釋하여 韓民族의 精神的 求心力을 除去하려고 企圖했음.
- 同時에 韓國固有의 것은 모두 무조건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케하는 自己卑下 意識 (例를 들면 엽전思考方式이라고 自虐하는 意識構造)을 扶植시키고, 傳統的인 義理精神과 正義의 精神을 除去시킴으로써, 無事安逸의 個人利己主義를 移植시키는 植民地的 洗腦工作을 實施했음.
- 다시 말하면 日本植民地政策은 韓國民의 精神構造를 質的으로 轉換시켜 日本化 하려는 術策이었음. (內鮮一體와 同根 同祖理論 捏造)

(라) 解放後 分斷과 韓國人 意識 構造 (35)

1) 分斷直後 全韓國人의 意識 狀態

- 韓國의 傳統的 價值基準인 性理學 價值體系는 崩壞過程으

註 (34) 金哲垓著, 韓國文化史論

(35) 洪以燮著, 韓國精神史序說 參照

로 접어 들었고

- 解放後 韓國人의 精神構造를 보면 인테리 階層은 左右의 思想分裂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음.
- 都市人의 開化階層은 精神的 방향狀態에 빠져 있었는데
하면 農村人의 大多數는 傳統的인 保守意識을 그대로 維持하여 二重構造的 意識現象을 露呈
- 이리하여 總體的으로 볼 때 解放後 韓國人 意識構造는 精神的 求心點을 잃은 方向狀態속에 있었음.

2) 現時點에 있어서의 南北韓 意識構造 (36)

가) 肯定的 側面

- 大義的인 國家次元의 安保意識에 限해서만 地域과 世代의 區別없이 男女老少가 모두 徹底히 意見一致를 보이고 있음.

나) 否定的 側面

- 個人의 價值觀은 傳統과 近代化속에서 방향하고 있으며 30 歲를 分岐點으로 하여 世代間의 커다란 乖離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 國民意識에 있어서도 貧富間, 地域間, 企業家와 消費者間에 커다란 乖離現象을 나타내고 있음.

심각한 國民意識의 兩極化 現象露呈

註(36) 全國民意識調查概要, 每日經濟新聞, 調查期間, 1975.8.1 ~ 10.15 (2個月15日)

다) 希望的 側面

- 우리나라 國民大多數가 막연하나마 未來 指向的인 思想을 갖고 있으며
- 宗教觀에 있어서도 教理自體에 對한 抽象的 妄執보다는 韓國傳統의 現世主義的 姿勢⁽³⁷⁾를 取하고 있기 때문에 世界的 趨勢인 諸宗教的 派爭속에서 脫皮하여 國民의 精神的 統一을 確立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
- 東方禮儀之國이라는 古來의 國家意識에 커다란 自負精神을 갖고 있으므로 平和統一理想이 定立되는 경우 將次 確固한 國家觀이 形成될 것으로 展望됨.

註(37) 朴鍾鴻著, 韓國의 思想的方向 參照

다. 現北韓의 本質과 實相

(1) 金日成主体思想의 本質

(가) 概要

- 金日成 權力集團은 本始 第2次 大戰後 소聯의 勢力擴張 政策의 一環으로 發生한 소聯의 傀儡政權이었는데
- 金日成은 1955年 12月 28日 「思想에서의 主体」를 提起 하고 소위 主体思想을 黨政策으로 公式적으로 宣言하였음
- 이리하여 金日成은 主体性이라는 名分을 利用하여 1956年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演說에 따른 中·蘇紛爭이 本格化 됨에 따라 對外的으로는 中·蘇紛爭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避하기 爲해 줄타기式 二重外交를 展開하고, 對內的으로는 中·蘇의 對北韓 影響力 減退를 活用하여 反金日成 政治勢力 (소聯派, 延安派 및 國內派)를 모두 肅清해 버리고 金日成直系 빨치산 系列을 基軸으로한 金日成 「人獨裁 權力體制」를 確立하였음
- 1960年代에 들어와 中·蘇對立이 深刻한 段階에 突入하고 東歐共產圈에서 修正主義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자 金日成은 이 機會를 利用하여 67年 11月 11日 演說에서 「黨의 唯一思想」이란 用語를 公式적으로 使用하고 한편 동년 12月 16日 最高人民會議 4期 1次會議에서 主体思想을 政府政策의 指針으로 確定하였는 바, 이와같은 一連의 措置는 金日成 偶像化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것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開始된 金日成個人偶像化 路線은 激化一路를 거듭하여 드디어 1974年 北韓에서는 「金日成主義」라는 新用語가 造作되어 使用되기 始作하였고 金日成權力集團은 金日成主義가 맑스·레닌主義 보다 優秀한 理論이라는 妄言을 지꺼리기 始作하고 있음

(나) 金日成主体思想의 鬪爭論理와 그 体系

1) 鬪爭一辺倒 論理

가) 主体思想의 論理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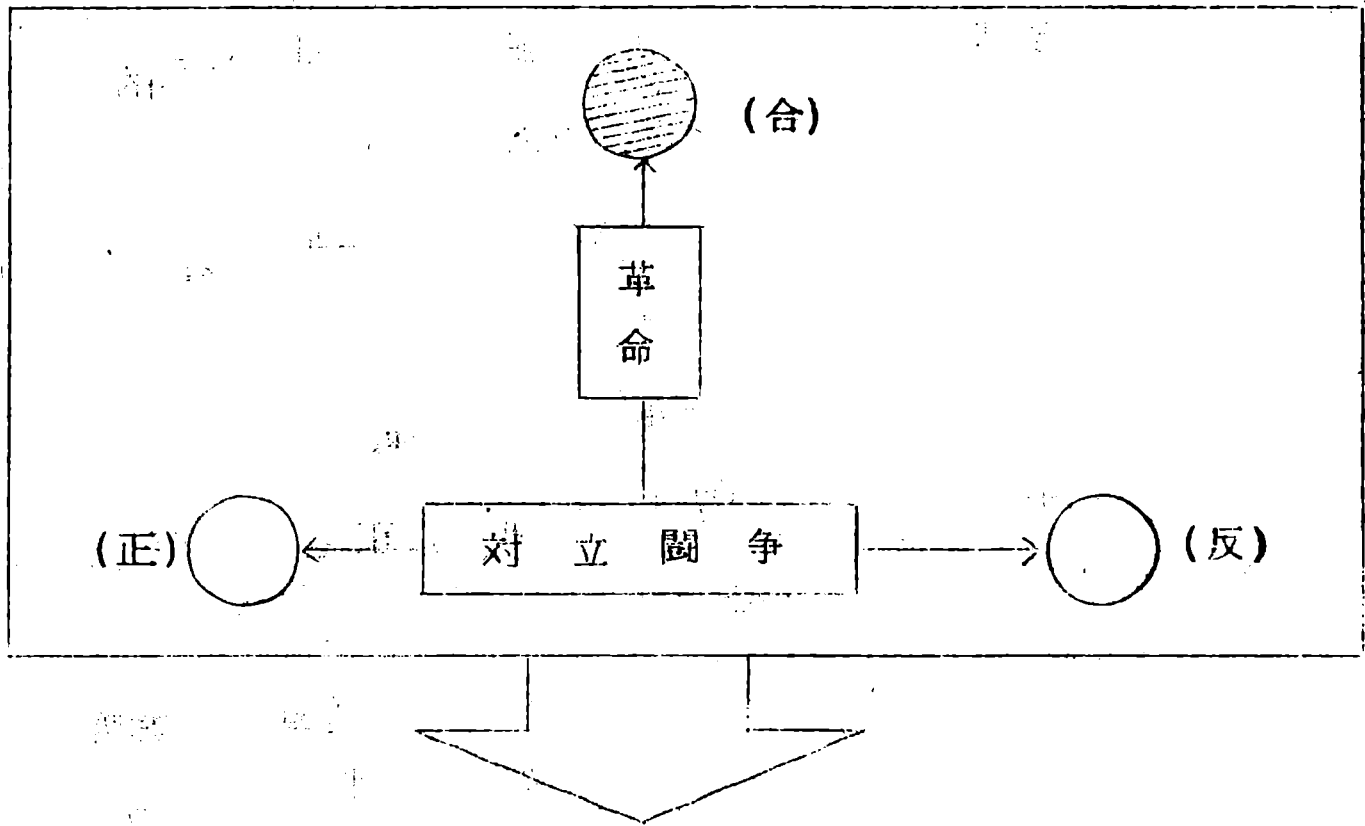
- 金日成主体思想은 「맑스·레닌主義를 行動 指針」으로 하는 思想体系로서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 原則을 朝鮮의 具體的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하는 것이 라고⁽³⁸⁾ 主張하고 있으며
- 또한 北韓에서는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여 「時代가 달라졌다는 口實 밑에 맑스主義의 基本 原則들을 拒否하고 革命鬪爭을 그만 볼것을 要求」하는 修正主義를 排擊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음⁽³⁹⁾
- 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맑스·레닌主義의 行動指針」 「創造的適用」,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 固守」 등의

註(38) 楊亨燮, 全國社會科學者大會(1972.4月3日~10日)에서의 討論, 共產圈資料(서울:極東問題研究所, 1972.4月号) P. 27

(39) 金日成 著作選集3 (1968) pp 324~325

用語와 分断後 30餘年間の 金日成權力集團의 行態를
 實証主義的 方法을 通해 分析해 보면 소위 金日成主
 體思想이란 단지 스탈린主義的인 鬪爭一辺倒論理에 立
 脚한 盲目的이고 獨善的인 主張에 不過하다는 것을
 確信할 수 있음

- 唯物論的 辨證法에 對한 스탈린主義的 解釋과 階級意
 識에 立脚한 鬪爭論理를 圖式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음⁽⁴⁰⁾



註(40) Joseph Stalin, Dialectical and Historical Mater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USA.

- 1) 人間意識은 物質의 反影에 不過하므로 人間은 階級鬭爭的 歷史發展의 必然的 合法則性에 따라 行動해야 한다고 主張
- 2) 따라서 人間의 個體的 自由意志가 抹殺되고 人間은 物質運動 法則에 從屬되는 存在로 轉落
- 3) 人間이 社會的 物質關係에 從屬되어 人間疎外現象이 深刻히 提起됨

나) 唯物論的 辨證法에 對한 北韓學界態度

- 現在 北韓學界에서는 唯物論的 辨證法에 對한 哲學的 研究가 事實上 不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金日成 權力集團의 強壓的 措置때문일 것으로 看做됨
- 北韓의 哲學界는 단순히 金日成選集에 収録된 金日成 演說 語句만을 引用하여 讀經式으로 合理化시키는 宣傳에만 熱中할 뿐이며 이렇게 볼때 真正한 意味의 哲學界는 없다고 볼수있음
- 哲學서적으로서도 1962年 科學院에서 出版된 朝鮮哲學史 上卷外에는 아직 한卷의 研究 結果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볼때 北韓에서는 社會的根本原理나 論理學에 對한 研究가 政治的 禁忌事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看做됨

- 따라서 金日成 權力集團은 自己政權維持를 為해 韓半島 赤化革命論의 바탕이 되는 스탈린主義的 鬭爭論理만을 北韓學界에 政治的으로 強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北韓의 哲學界나 社會科學界는 그야말로 世界歷史上 類例없는 不毛의 狀況에 處해 있는 것으로 看做됨

다) 批 判

① 東歐 現代共產主義 思潮에서 본 金日成主体思想

- 1956年 스탈린 格下運動 以來 東歐共產圈의 一部 思想家 (루카치, 하베르만) 들은 스탈린主義的인 소聯의 맑스主義 解釈에 對한 심각한 批判을 提起, 심지어는 레닌의 「唯物論과 經驗批判」에 對해서도 하나의 소박한 唯物論에 不過하다고 主張⁽⁴¹⁾
- 이들 一部 思想家 (主로 폴란드, 東獨, 체코) 들은 結局 소聯當局에 依해 政治적 탄압을 받고 말았지만 1960年代에 이르러 東西兩陣營間의 平和共存 무드가 高潮되자 또다시 東歐共產圈 思想界一角에서는 辨證法的 唯物論에 對한 새로운 解釈을 試圖하면서 소위 「共產主義的 휴머니즘」이라는 問題를 提起하

註(41) Peter Christian Ludz, Ideologiebegriff und Marxistische Theorie, Westdeutscher Verlag, 1976 參照

고 스탈린主義的 소聯共產主義 理論에 對한 맹렬한
批判과 修正을 要求⁽⁴²⁾

- 이리하여 소聯 當局도 其實 새로운 時代的 思潮를
受容하는 態勢를 取하였으며 實際的인 對西方姿勢를
상당히 轉換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는바 이것은 不可
避한 歷史的 發展現象이라 하겠음
- 共產主義 휴머니즘이란 結局 西歐近代思想의 核心인
人間重視思想을 受容하는 것으로서 事實上 레닌 以來
의 暴力的 階級鬭爭理論에 對한 反省을 뜻하며 그리
고 辨證法的 唯物論에 對해서도 새로운 角度的 解釋
을 試圖하고 있는바 이것은 소聯 볼셰비키 共產主義
思想에 對한 根本的 修正을 意味한다고 볼수있음
- 이와같은 東歐共產圈의 새로운 思潮의 立場에서 볼때
스탈린主義的 共產主義를 固執하고 있는 金日成主体思
想이란 時代逆行的인 잡끄대이거나 妄執에 不遇함
- ② 中共毛沢東思想立場에서 본 金日成 主体思想
 - 또한 中共의 毛沢東思想을 보더라도 그 思想의 真
髓가 되고 있는 矛盾論, 實踐論이 中國傳統思想의
根幹이 되고 있는 陰陽理論을 크게 內包⁽⁴³⁾ 하고 있

註 42 前掲書, 上同

43 毛沢東選集 第一卷 參照, (矛盾論), 北京人民出版社, 1963.
P.300.

○ 레닌이 主張하는 物質의 辨證法的 運動法則에 관한 理論을

기 때문에 西歐的 眼目에서 볼때는 엉성하고

素朴한 通俗的 論理에 不過하다고 主張될 수 있고 또 한 事實上 主張되고 있음

- 그래도 毛沢東思想은 傳統中國的 風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思想의 幅이 다소 넓다고 볼수있으며 이러한 要素때문에 美·中共和解關係가 始作되었다고 볼수있음 同時에 中·蘇對立의 根本要因도 바로 여기에서 出發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음
- 이처럼 毛沢東思想의 立場에서 볼때도 東洋思想의 傳統을 完全히 無視하는 金日成主体思想이란 한갓 獨善的인 個人의 主張에 不過하고 1967年1月 北京 紅衛兵들이 金日成을 '살인修正主義者'라고 非難한 動機도 바로 이점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임

③ 小 結 論

- 東歐現代共產主義理論이나 中共 毛沢東 思想의 立場에서 볼때 金日成主体思想과 族閥的 偶像體制는 도저히 納得될 수 없으며 하나의 奇怪한 政治的 演劇으로 理解될 수밖에 없음

漢文으로 번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東西洋의 觀念, 差異가 露呈되고 있음 (이것은 中蘇紛爭의 基本要因中的 하나임)

“列寧說, 馬克思主義的最本質的 東西, 馬克思主義的 活的 靈魂, 就在於 具體的 地分析具體的 情況 ”

- 1974년에 들어와北韓에서 金日成主義라는 새로운用語를 내세우면서 金日成主義가 맑스·레닌主義보다優秀한 理論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上記의 것을 明白히 立証하는 하나의 事例라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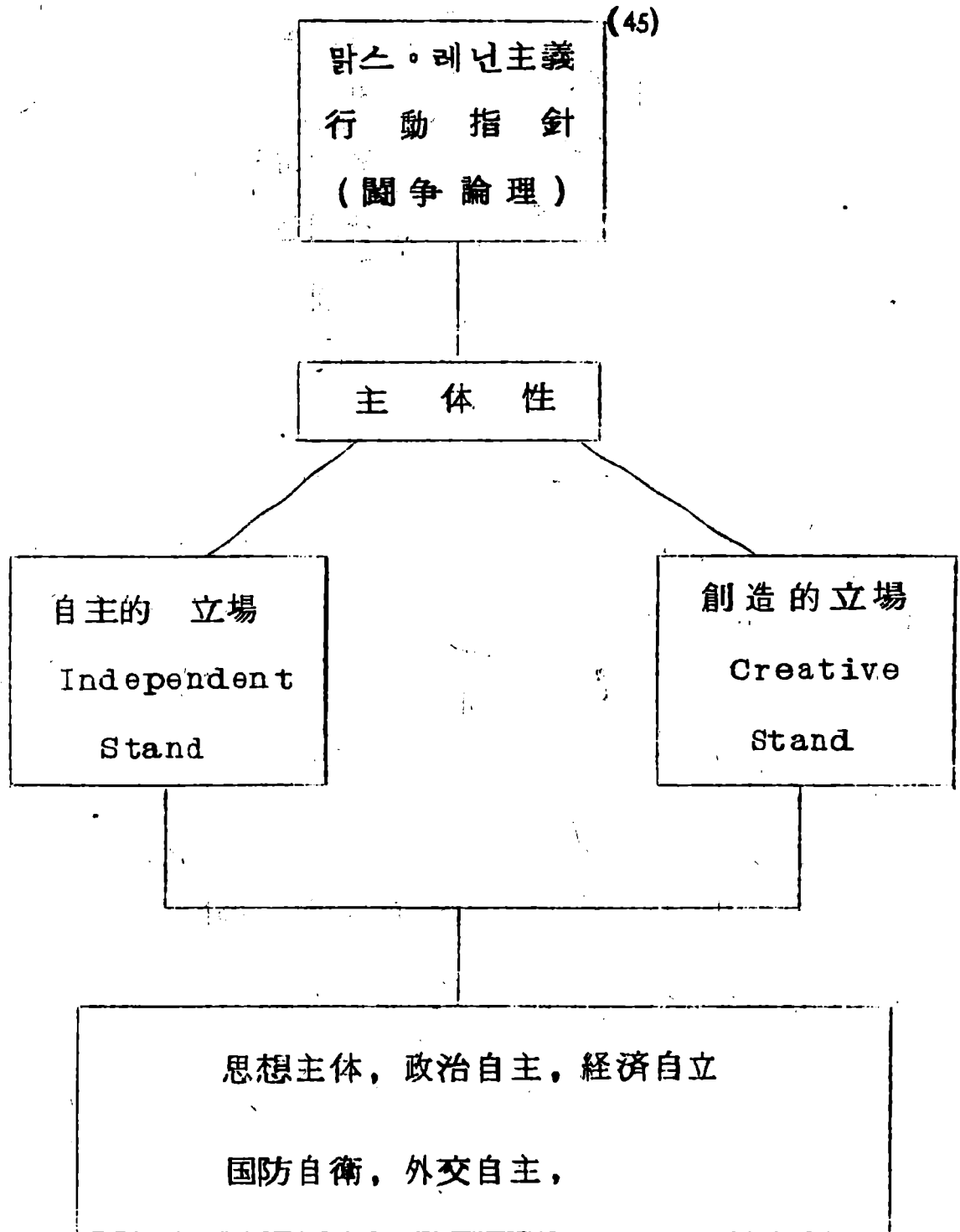
2) 金日成主体思想体系

가) 主体思想의 定義

- 金日成은 '主体를 세우는 것은 革命과 建設의 모든 問題를 独自の으로 自己나라의 實情에 맞게 그리고 主로 自體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原則을 견지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教條主義를 反對하고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인 真理와 國際革命運動의 經驗을 자기 나라의 歷史的 條件과 民族的 特性에 맞게 適用하여 나가는 現實的이고 「創造的인 立場」이다. 이것은 남에 對한 依存心을 버리고 自力更生의 精神을 發揚하며 自己의 問題는 어디까지나 自身이 責任을 지고 풀어나가는 自主的인 立場이다⁽⁴⁴⁾라고 말하고 있다.
- 이어 具體的인 領域에 들어가서는 政治的 스토간으로서 「思想主体」, 「政治自主」, 「經濟自立」, 「國防自衛」를 부르짖고 있음.

註(44) 金日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의 社會主義建設과 南朝鮮 革命에 對하여" 1965. 4. 14 인도네시아 알리, 하르함에서의 講義, 金日成 著作選集 4 (1968) P. 219

○ 主体思想体系를 圖表化해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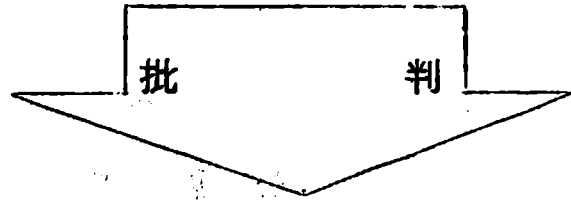


註(45) 自主性を 옹호하자,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6, p.159

나) 主体思想의 内容分析

① 自主的立場 (原則上의 問題)

- 金日成放送大学 講義錄 (哲學講座) 에 依하면 「自主的立場」이라는 것은 모든 問題를 오직 自己 머리로 思考하고 自身の 判斷에 따라서 獨自적으로 解決해 나가는 獨自성과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으로 發揚된다고 한다. 즉 自主的 立場을 堅持하는 것은 獨自성을 지키고 自力更生의 精神을 갖는것을 意味한다고 볼수 있음
- 이어 自力更生에 對해서는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한다는 것은 簡單히 말해서 確固한 主体的 立場에서 自力更生하여 自己손으로 꾸려나가되 ぜ발로 걸어갈수 있는 經濟를 建設한다는데 있다」고 主張
- 이와같은 合理的으로 보이는 主張을 하면서 結論的으로 同講義錄은 「自己의 머리로 思考하고 생각해 가는 것은 바로 金日成同志의 思想과 意志대로 思考하고 主体思想의 具現인 黨政策과 路線이 가르친대로 꾸려나가는 것이다」라고 主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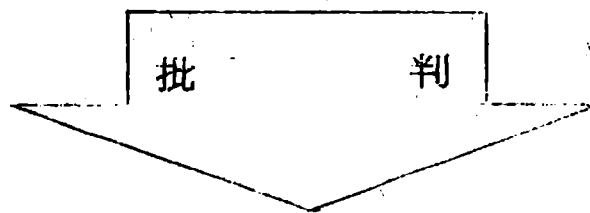
- 金日成이 말하는 自主性 (independence), 自力更生 (Self-Reliance) 等の 概念은 同用語가 使用되기 始作한 當時의 國內外政治現實과 그後의 事態發展 過程에서 照鑑해 볼때 金日成 1人 權力体制 確立과 密接한 難関性을 가지고 있으며
- 오늘날에 와서는 金日成族閥偶像体制 構築作業과 緊密한 關聯性을 갖고 있는 象徴的 用語로 사용되고 있음
- 即 反金日成 政治勢力 (소聯派, 延安派, 國內派) 肅清이라든가 中·蘇에 對한 二重的 兩面 外交等이 端的으로 이를 實証함.
- 그리고 北韓内部的으로는 自主性이란 「金日成同志의 思想과 意志대로 思考해야한다」고 云云하는 主張에서 잘 나타나듯이 民族全體의 自主性이 아니라 金日成 1人의 自主性을 말하는 것이며 自力更生이란 千里馬運動을 爲한 強制 勞動動員 手段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 概念으로 볼수 있음.

② 創造的 立場 (方法上的 問題)

- 北韓의 說明을 引用해 보면 創造的 立場이라는 것은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 原理와 다른 나라의 經驗을 北韓의 現實에 맞도록 批判的으로 適用하고

아울러서 人民大衆이 그들의 積極的이고도 創造的인 革命精神을 最大限으로 發揚하므로써 主人으로서의 位臚를 더욱 높이는 態度를 말한다고 主張함

- 또한 「革命과 建設의 主人인 人民의 無窮無限한 創造와 經驗을 全面的으로 發揚시켜서 온갖 난관과 試鍊을 이겨내고 革命과 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쳐 나가는 것」이 바로 創造的인 積極的 革命精神이라고 主張하고 있음
- 한편 主体思想이란 맑스·레닌主義를 北韓의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思想体系라고 말하면서 創造的 用語를 使用하고 있음



- 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創造的適用, 積極的 革命精神等의 概念이란 實로 奇妙한 用語로써 金日成 1人獨裁 体制 및 對南革命鬪爭路線과 聯関性을 갖고 있음
- 創造的 適用이란 用語는 金日成個人이 맑스·레닌主義理論이라는 名分下에 自己 멋대로 할 수 있다는 意味를 가지고 있는바, 다시 말하면 金日成이 創造的으로 適用할 경우 天才的 指導指針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했다면 修正主義라는 낙인이 찍혀 꿈작 못하고 肅清감이 됨.

- 積極的 革命精神이라는 用語는 马克思·레닌主義를 創造的
으로 適用한 金日成의 对南赤化 革命路線을 北韓 住民
이 모두 무조건 追從해야 한다는 意味를 가지고 있으
며 個人이 異意를 提起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임

다) 主体思想의 淵源과 形成背景造作

- 金日成은 " 党的 唯一思想体系는 歴史的으로 1930 年代
金日成 抗日武装鬪争의 實踐過程에서 定立된 金日成 革
命思想에 基礎하고 "(46) 있다고 主張하고
- " 主体思想은 1930 年代의 金日成革命思想을 淵源으로
하고 있으며 马克思·레닌主義 理論을 보는 態度, 立場,
觀點 " 이라고 主張함 (47)
- 이어 金日成 權力集團은 理論을 合理化하기 爲하여
소위 金日成 革命思想의 源泉으로써 1930 年代 金日成
抗日武装鬪争 史를 捏造하고 이를 또다시 5 千年 韓民族
史와 連結시키기 爲해 韓國史를 階級的 人民鬪争 史로
歪曲化하고 있음

註 (46) 金日成放送大学講義錄, 革命歴史講座 参照 (極東問題研究所發刊
1974.6)

(47) 金日成放送大学講義錄, 勞動黨政策史 講座参照 (極東問題研究所
發刊, 1973.11.)

3) 小結論 ⁽⁴⁸⁾

- 金日成主体思想은 本質的으로 「金日成 1個人的 主体」를 核心 内容으로 하고 있는 바 大韓民国에서 使用하고 있는 民族主体概念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하다.
- 70年代에 들어와 國際政治權力構造의 多元化와 더불어 主体思想은 内部的으로 金日成族閥偶像化 体制構築을 爲한 思想的 武器로 活用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民族主義的 色彩를 나타내어 非同盟中立國勢力에 接近함으로써 統一의 主導權을 掌握하기 爲한 外交的 弘報宣傳的 武器로 活用되고 있음

(나) 主体思想과 傳統的韓國思想과의 關係

1) 概要

- 金日成 權力集團은 스탈린主義的 階級鬭爭 論理에 立脚하여 韓國歷史를 階級的 人民鬭爭史로 歪曲解釋하고 또한 傳統的 韓國思想을 唯物論的 辨証法論理에 立脚하여 歪曲解釋함으로써 其美 韓國民의 歷史와 思想을 兩分하고 있음
- 또한 金日成主体思想을 過去歷史와 傳統思想史의 脈絡과 連結시킴으로써 歷史的 思想的 正統性을 主張하려 하고 있음.

註(48) 朴鍾鴻著, 韓國的價值觀 參照.

2) 主体思想과 傳統思想과의 連結關係

가) 歷史와 思想과의 關係

○ 共產主義理論은 歷史와 思想을 不可不離의 關係로 보기 때문에 우선 北韓學界의 國史觀을 보면 다음과 같음

即 北韓史學界는 國史觀定立에 있어서 丹齊 申采活의 民族史觀 가운데 丹齊史觀의 真髓인 民族精神을 除去해버리고 日帝侵略에 抗爭하기 爲해 展開한 「人類의 歷史란 我와 非我的 鬪爭」이라는 丹齊의 抗日鬪爭論理를 階級的 人民鬪爭論理로 遁甲시켜 歪曲的으로 適用하고 있음⁽⁴⁹⁾ (申一徹 高大教授 主張)

○ 이처럼 北韓 史學界는 丹齊의 民族精神을 除去하고 丹齊의 抗日鬪爭方法만을 部分的으로 採択하여 國史觀을 定立함으로써 對外的인 戰略戰術 側面에서 民族主義的 色彩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對備하여 韓國史學界는 對外的으로 說得力있고 合理主義的인 主体的 民族史觀 (1973年 朴大統領閣下의 全國教育者大會演說에서 強調)을 하루빨리 定立해야 함

○ 韓國思想史의 基本性格을 把握함에 있어서도 北韓 哲學界는 上記 國史觀의 階級的 人民鬪爭論理를 그대로 適用하고 있음

註 (49) 申一徹, 北傀의 國史觀 歪曲에 對해 國土統一 第一卷, 1970.

- 北韓科学院이 出版한 朝鮮哲學史(上)를 보면 古朝鮮과 近世朝鮮朝에 이르기까지의 韓國思想史를 支配階級の 唯物論과 對立鬭爭史로 把握하고 있음
- 階級鬭爭史觀과 唯物論的 辯證法에 立脚하여 韓國思想史를 歪曲解釋함으로써 其實 韓民族의 思想的 分裂을 劃策
- 金日成 主体思想이 定立됨으로써 드디어 唯物論이 勝利했다 主張

나) 韓國思想史에 對한 唯物論的 解釋⁽⁵⁰⁾

① 古朝鮮時代의 唯物論發生

- 古朝鮮은 紀元前 3世紀頃 벌써 原始共同體社會를 벗어나 노예社會로 發展되었으며 이와같은 歷史的 條件에서 農業生産과 결부된 進步的 노예所有者階級の 利益을 代弁하는 唯物論的인 哲學的 見解가 發生
- 이當時 中國으로 부터 傳播된 陰陽 五行思想은 本來 소박한 唯物論的 및 自然發生的 辯證法的 哲學潮流라고 主張하고 그後 三國初期에 이르러 地理學과 결부되어 陰陽 地理說로 發展되었다고 主張

註(50) 조선 철학사상, 북한과학원 출판, 1962 參照

- 當時의 封建支配階級은 소박한 唯物論인 陰陽五行說을 觀念論으로 歪曲하여 統治의 手段으로 삼았다고 主張

② 新羅花郎道思想에 對한 解釋

- 新羅의 風流思想은 老子思想, 儒教 및 仙敎等과 類似한 側面들을 가진 朝鮮의 獨特한 思想體系이며 崔致遠의 記錄과 其他 史料를 綜合하여 보면 대체로 風流思想의 初期內容은 唯物論的 側面이 豊富한 哲學的 世界觀에 立脚하면서 낡은 秩序를 合理化하는 儒敎, 仙敎에 對抗한 進步的 思想體系라고 主張
- 그러나 統一新羅以後에는 反動的 支配階級の 統治理論으로 利用되었으며 그 唯物論的 內容이 去勢되고 儒仙, 道敎等과 절충되어가면서 宗教的 思想으로 轉落되었다고 主張

③ 朝鮮朝의 思想體系와 唯物論

㉑ 概 觀

- 北韓哲學界는 氣一元論을 主張한 徐花潭을 偉大한 唯物論者로 높이 세우며
- 理氣互發論을 主張한 退溪를 反動的 思想家의 代表者로 非難하고 아울러 理通氣局論을 主張한 栗谷에 對해서도 理의 一次性을 主張했다고 해서 非難하고 있음

㉞ 徐花潭의 氣一元論에 對한 解 釈

- 北韓哲學界는 花潭이 天地萬物을 自己自體로 存在하며 무단히 運動 變化하고 있는 始初도 終末도 없는 무궁무진한 客觀的存在로 認定하였으며 탁월한 唯物論的 自然觀을 樹立한 偉大한 思想家로 看做
- 이와같이 花潭을 唯物論者로 看做하는 根拠로서는 北韓哲學界는 氣概念을 마스레닌主義의 物質概念과 同一視하기 때문임
- 그러면 花潭이 主張하는 氣概念과 레닌이 主張하는 物質概念을 客觀的으로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음

레 닌 (51)

- 萬物의 根源은 物質이며 이것만이 永遠不滅하고 精神은 物質運動의 所産에 不過
- 物質이란 哲學的範疇로서 客觀的 實在 (第1規定性)이며 主體的으로 自己運動 (第2規定性)을 展開한다고 主張함
- 레닌은 精神의 獨自性과 超物質的 機能을 否定하고 있으며 意識이란 客觀的 存在의 反影에 不過하다고 主張

註 (51) 레 - 닌全集, 마르크스=레 - 닌主義 研究所訳, 日本, 参照

花潭 (52)

- 宇宙의 本源處(本質)을 氣라하고 理는 氣中에 內在한것 이니 氣外에는 理가 別個로 存在치 아니하다는 氣一元論(唯氣論)을 主張
- 氣는 無始無從, 無聲無臭하고 弥漫 遍塞한것으로 보면 無라 할수 없고 淡然虛靜한것으로 보면 有라고 할수 없는 本體를 말함(註, 原理氣論, 先天編)
- 이러한 氣가 先天世界(本體나 實在)에서 갑자기 躍動이 생기고 忽然히 開闢이 생기며 이것은 누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하면 그 機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것이요, 또한 그렇게 아니될수가 없는것이라 하였다.⁽⁵³⁾ 이때에 이것을 가르쳐 理라고 하는것이니 卽 이것은 必然이다 라고 함(機라 理라 必然이라 하는것은 말은 달라도 그 뜻은 同一함)(註, 原理氣論, 後天世界編)
- 이처럼 花潭은 理는 氣中の 一事物이며 氣의 一屬性인것에 不過하다고 말하고 氣不滅論을 主張하였음.

註 (52) 玄相允著, 朝鮮儒学史 參照

(53) 花潭集 卷2 原理氣 參照

· 衆爾闢, 忽爾闢, 孰使之乎, 自能爾也, 亦自不得不爾, 是謂理之時也, 易所謂感而遂通 庸所謂道自道, 周所謂太極動而生陽者也, 不能無動靜, 無闢闢, 其何故哉, 機自爾也.

- 朝鮮哲學史(上卷)을 보면 「서경덕이가 말하는 기는 가장 미세하고 류동적인 먼지와 비슷한 物質的 實體라는것을 보여주며 太虛郎氣란 「공간에 충만되어 있는 無聲無臭한 存在이므로 個別的 감각으로는 把握할수 없다. 그리고 감각적 具體性을 띠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허무가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太虛郎氣를 비물질적 存在로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밖에 存在하는 客觀的 실재이며 물질적인 것이다」⁽⁵⁴⁾ 라고 主張하고 있는바 이것은 레닌의 物質에 관한 第1規定性을 그대로 適用하여 歪曲 解釋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花潭이 말하는 氣의 聚散과 動靜關(生成發展 變化)에 대해서도 「상호침투, 상호대립, 상호작용하는 두대립물인 음양이 천지 만물과기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1음 1양, 1동 1정, 1생 1극하면서 부단한 운동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는 매개 작용운동속에 보편적으로 存在하는 두대립물의 상호작용을 坎離藏用(註, 坎離란 水火를 말함)이라고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두대립물을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하였다...太虛 즉 기의 자기 분렬과 양분, 음양, 동정생극의

註(54) 前掲 조선철학사, 상 p109.

상호교체, 극복의 方法에 의하여 부단한 과정 즉 運動이 일어난다고 본 그의 견해는 運動變化의 源泉에 대한 심모한 辨證法的 고찰이다」⁽⁵⁵⁾ 라고 歪曲 解釋하고 있는바 이것은 唯物論的 鬭爭辯證法 (스타린主義式 解釋)에 立脚한 運動法則을 그대로 適用하고 있는 것임.

- 花潭이 「氣外無理, 理者, 氣之宰也, 所謂宰, 非自外來而宰之」⁽⁵⁶⁾ 라고 하여 規定한 理概念에 대해서도 조선철학사 (p.113)는 「리는 기와 별개로 存在하는 실체가 아니라 氣의 運動變化의 合法則性을 수식하는 한개 명사로 사용된 것이었다」라고 主張하여 歪曲 解釋하고 있음
- 1968년에 出版한 北韓의 現代朝鮮 말辭典에서는 아예 「理」字를 削除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金日成 極少數權力集團의 鬭爭一辺倒의 劃一的 思考方式을 如實히 證明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註 (55) 前掲 朝鮮哲學史, 上, p.116

(56) 花潭集 卷2 原理氣 參照

“原其所以能鬭關能動靜能生克者, 而名之, 曰太極, 氣外無理, 理者, 氣之宰也, 所謂宰, 非自外來而宰之, 指其氣之用事能不失, 所以之正者, 而謂之宰

批 判

○ 氣概念을 芻요하고 現代의意味로 把握함에 있어서 대체로 3 가지로 解釈되고 있음

첫째	○ 東洋의 思考原則과 西洋의 方式이 根本적으로 相異한 觀念에서 出發되고 있으므로 氣概念은 西歐的 物質 概念과는 다르다. ○ 곳이 西洋의 概念과 比較하여 說明하면 精神과 物質을 움직이게 하는것이 氣의 作用이다 (57) (金凡父氏主張, 東方思想論叢)
둘째	○ 西歐의 哲學觀念과 現代自然科學的 知識에 立脚해 볼때 氣란 바로 物質概念과 같음 (58) (西歐哲學者一部 및 唯物論者)
셋째	○ 우리나라 儒學者인 玄相允 (朝鮮儒學史著述) 氏는 “花潭은 「氣는 無始無終하다」는 생각으로부터 物質不滅을 主張하였다 ” 고 말하면서 氣와 物質이 同一함을 暗示 (59)

註 (57) 金凡父, 周易講義, 東方思想論叢 參照

(58) 前掲 조선철학자, 상, 參照

(59) 玄相允 著, 前掲 朝鮮儒學史 參照

- 玄相允氏は 東洋的思考方式에 立脚해서 西洋哲学의 物質 概念을 氣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는듯함
- 이렇게 볼때 玄相允氏は 儒學者이기 때문에 西歐的物質概念을 西歐的思考原則에 立脚해서 明確히 認識할수 있는 能力을 가질수 없는 認識의 限界性을 지니고 있는듯함.

- 北韓哲學界는 東洋的思考方式을 完全히 無視하고 西歐哲學的 概念, 特히 馬스레닌主義的思考原則에 立脚해서 氣概念이 바로 唯物論에서 말하는 物質概念과 同一하다는 圖式的主張을 하고 있음⁽⁶⁰⁾
- 그러나 東洋의 思惟方法 (特히 易經) 과 西歐의 思惟方法 (特히 辨証法) 이 基本的으로 相異하기 때문에 東洋哲學의 氣概念과 西洋哲學의 物質概念이 同하다 異하다 하고 간단히 圖式的으로 比較할 수 없음.
- 더우기 徐花潭은 易經에 根源을 둔 氣一元論을 主張한것임으로 周易과 西洋辨証法이 基本的으로 相異한 以上 北韓哲學界가 主張하듯이 花潭을 단순히 唯物論者로 規定할 수 없음.

註(60) 前掲 조선철학사, 상, 參照

人倫觀에 있어서 花潭이 民本王道政治論을 主張하고 認識方法에 있어 持敬觀理와 主靜說을 主張한것 등을 미루어 볼때 이것은 實踐을 앞세우는 認識方法을 主張하는 唯物論者의 思考方式과는 根本적으로 相異함

- 結果적으로 보아 花潭을 간단히 唯物論者로 規定해 버리는것은 西歐的 思考方式에 压倒되어 花潭哲學의 本質을 歪曲解釋하는 것임.

㊦ 小結論

- 北韓哲學界는 花潭이 大成한 唯物論的 自然觀이 朝鮮哲學史의 主流가 되어 그후 實學運動과 連結된다고 主張하고
- 實學은 17世紀頃부터 더욱 激化되는 封建社會의 모순을 反映하고 中國을 통하여 들어오는 先進的 自然科學의 影響을 받아 實事求是를 主張한 學派로서
- 진보적 양반계급의 利益과 農民 및 都市 平民層의 利益을 代弁한 유물론적 哲學的 要素를 豊富하게 지닌 진보적 哲學이라고 主張 (61)

註 (61) 前掲 朝鮮철학사, 상, p.368

(타) 主体思想에 对한 外国人学者의 見解

1) 美国 R.A Scalapino 教授의 見解⁽⁶²⁾

- 解放初期에 全的으로 소련의 權力과 支援으로 權力을 維持하고 거의 奴隸와 같이 屈服해온 金日成이 1955年에 와서 反金勢力의 党内肅清을 위해 民族主義的 武器를 使用하려고 했는바, 이 武器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련으로 부터 새로운 獨立을 豫想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며
- 金日成의 主体性 強調는 1956年 소련 第20次 共産党 大会 以前에 일어난 것을 考慮에 넣어야 하며 이것은 當時의 狀況으로 봐서 國際的 考慮에서가 아니라 國內的 考慮의 産物 (소련派, 延安派肅清)로서 金日成의 「새로운 民族主義」라고 主張

2) 美国 Glenn Paige 教授 見解⁽⁶³⁾

- Paige는 自己가 10年間에 걸친 北韓指導者의 經驗을 分析한 結果 北韓共産主義者들이 점차 獨特한 行動類型을 위한 原理를 發展시켜 왔다는 것이 그의 結論이었다.

註 (62)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p. 501~503, 867~868.

(63) Glenn Paige, “北傀의 蘇聯·中共形態模倣”
A. Doak Barnett,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鄭秉學訳, 아시아의 共産戰略 (서울, 法文社, 1969) pp. 275~

그에 의하면 그러한 行動類型의 原理는 北韓이 中共과 소련의 政策에 대한 模倣을 部分的으로는 許容하지만 점차적으로 馬스레닌主義理論의 「北韓的適用」에 대한 독자적인 모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主張

- 이어 그는 北韓의 指導層은 事實上 소련의 歴史的敎訓, 中共革命의 實際的인 經驗, 그리고 馬스·레닌主義理論을 混合시키는데 있고 北韓이 自己意識下에 政策을 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主張

3) Bruce G. Cumings의 見解⁽⁶⁴⁾

- 北韓支配層은 主体思想으로 表示되는 民族主義의 강조와 馬스主義的 國際主義原則을 融合시키는 問題에 直面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朝鮮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馬스·레닌主義의 適用에 있어서 獨창적 解決方法이 要求되며 소련 모델과 中共 모델은 맞지 아니하므로 朝鮮사람들은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의 獨特한 綜合 (Synthesis)를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1946年 出版된 白南雲의 著作 (朝鮮民族의 進路, 서울, 新進社, 1946. pp. 11-12, 29-32, 34-40)을 引用하고 金日成은 主体思想을 이러한 背景과 北韓의 現實的要求에서 1955年末에 主張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註 (64) Bruce G. Cumings,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March / 1974, pp. 34 ~ 35.

- 이어 金日成이 主体思想을 1955年末에 主張한것은 1956年の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演說과 中·소紛爭이 本格化하기 以前이므로 主体思想의 起源이 中·소 巨人間의 줄타기 外交의 産物이라는 解釈을 反對하고 있음
- 4) 日本共産黨員(親소派)의 見解⁽⁶⁵⁾
 - 自主, 獨立路線은 眞空狀態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中소紛爭이 激化되었을때 中國共産黨의 反蘇캠페인이 東南亞의 모든黨을 풍미하고 있을때 이에 合流하고 追從하기 爲해서 나온것이라고 主張
- 5) Roy E. T. Kim (韓國以北出身) 教授見解⁽⁶⁶⁾
 - Kim은 北韓이 主体思想을 내세우게 된 原因으로서
 - 가) 弱小國이 強大國사이에 끼어서 겪은 過去의 民族的侮辱感情
 - 나) 中·소의 大國主義 (big power chauvinism) 와 兩國의 北韓內政干涉
 - 다) 近代化에 對한 熱望等을 들고 있다.

註(65) 神山茂夫, 自主獨立路線の正體, 東京, 刀江書院, 1966.p. 113

(66) Roy E. F. Kim, "North Korea's Relations with Moscow and Peking,"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Washington, D. C. 1973. pp. 96 ~ 101

- 外国人 学者들이 金日成의 主体思想을 皮相的으로 觀察하여 「새로운 民族主義」로 간단히 보아넘기는 態度에 對해서는 오늘날 韓国人知性들이 深思熟考하여 깊이 洞察해야 할 問題이다.
- 韓國의 傳統思想과 論理體系를 깊이 理解하고나면 金日成主体思想이 얼마나 非韓國的이고 反民族的인 것인가를 明快히 알 수 있다.
- 그런데 韓國的論理와 傳統文化를 잘모르는 外國人の 眼目에 金日成主体思想이 民族主義的인 것으로 비취진다면 이와같은 現象背後에는 그냥 넘겨버릴수 없는 重大한 政治問題가 介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오늘날 韓國統一問題의 本質속에 國際的 性格이 깊이 內包되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는 以上 統一의 主導權掌握을 위요한 南北韓競爭에 있어서 上記와 같은 外国人学者의 皮相的인 對金日成觀은 政治現實的으로 必然코 重大한 影響을 끼치게됨을 否認할 수 없다.
- 이에 對한 對備策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으며 그 根本 方策이란 바로 앞서 提示한 民族文化傳統을 土台로한 平和統一理念 定立에 있다하겠다.

(마) 結 論

- 金日成主体思想은 独自の인 論理的 土台가 없고 理論的体系도 아직 未定立 狀態에 있다.
단지 스탈린主義的 鬭爭論理를 誦經式으로 盲目的으로 의
우기만 할뿐이며 이러한 劃一的 鬭爭論理만 가지고는 오
늘날의 國際社會에서 살아갈수 없고 生存할 能力을 喪失
하게된다.
- 金日成이 떠들어 대고 있는 主体性, 自主性, 創造的適用
等の 概念들은 지극히 通俗的인 用語들이며 또한 概念相
互間을 理路整然하게 連結시켜줄수 있는 論理的 틀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金日成 思想이란 金日成 1
個人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行動하는 것을 合理化시켜주는
魔術的 用語에 不過하다.
即 主体性이란 金日成 個人의 主体性이고 創造的 適用이
란 金日成 個人의 創造的 (임기응변, 임시변통) 適用을 意
味할 뿐이다 (67)
- 오늘의 北韓은 이와같이 捏造된 教條的 精神狀況에 놓여
있기 때문에 金日成 1人偶像體制가 成立되고 있는것이며
金日成族閥의 世襲王國論까지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註 (67) 朴鍾鴻著, 前掲 韓國의 價值視, 參照

'代를 이어 忠誠하자'라는 口號가 과연 北韓住民이 제 정신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일까? 深思熟考할 課題라 하겠다.

- 소련의 見解에 依하면 個人崇拜는 맑스·레닌主義와 矛盾된다고 한다.

個人崇拜는 맑스主義에 反對되는 이데오로기이며 封建主義와 부르조아個人主義 世界觀에 기초한 이데오르기라는 것이다 (68)

- Marx도 歷史에서의 個人役割의 重要性을 否定하고 있으며 人類歷史에 있어서 決定的役割이 계급들의 活動과 鬪爭에 依하여 이루어진다고 主張한다. 맑스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의 北韓共產主義 體制를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評할 것인가? 아마 資本家를 打倒하기에 앞서 먼저 金日成을 打倒해야 한다고 맹렬한 主張을 할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1967年 中共의 北京紅衛兵들이 金日成을 두고 "살전 修正主義者"라고 非難한것이 이것을 反証하는것이 아닐까?

註(68) O.V. Kuusinnen, Fundamentals of Marxism - Leninism, Moscow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3, P. 183

- 이렇게 볼때 現北韓의 本質과 實相을 正確히 認識하려면 北韓社會에 決定的作用을 하고 있는 金日成 個人의 퍼스널리티 (人格)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金日成의 性格이 北韓住民의 意識形成에 미치는 影響을 科學的으로 分析해 보아야 한다.
- 盲目的 鬪爭論理만을 偏執狂的으로 부르짖고 있는 오늘의 北韓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2) 制度的側面

(가) 概要

- 오늘날 北韓은 社會制度的으로 볼때 化家爲國이라는 傳統的 觀念과는 正反對로 國家라는 社會的 共同體속에 家族制度가 埋沒되는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임.
- 即 家族機能은 可能한 限 縮少시키는 反面, 協同農場, 企業所 等の 集團生活的 機能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
- 따라서 5千年 歷史를 지닌 傳統的 家族中心文化를 完全히 破壞하려 하고 있으며 오직 金日成偶像化를 爲한 奇怪한 家族共產制를 形成하고 있음.
- 1,600만 北韓住民의 家族은 戶主 相續制 廢止를 통해 산산히 分裂시켜 그 機能을 宿縮시키는 反面에 金日成個人의 家族만은 크게 浮刻시키고 있음
金日成의 祖上까지 抗日鬪士로 捏造하여 金日成家族 (金忠

禹→金輔鉉→金亨稷→金日成→金正一)을 神格化 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마치 朝鮮朝家禮 속에 있는 5代 奉祭祀制를 奇怪하게 適用하고 있는 現象을 露呈시키고 있음. 다시 말하면 金日成家族의 5代奉祭祀制만을 北韓 全住民에게 強要하는 格임

(나) 家族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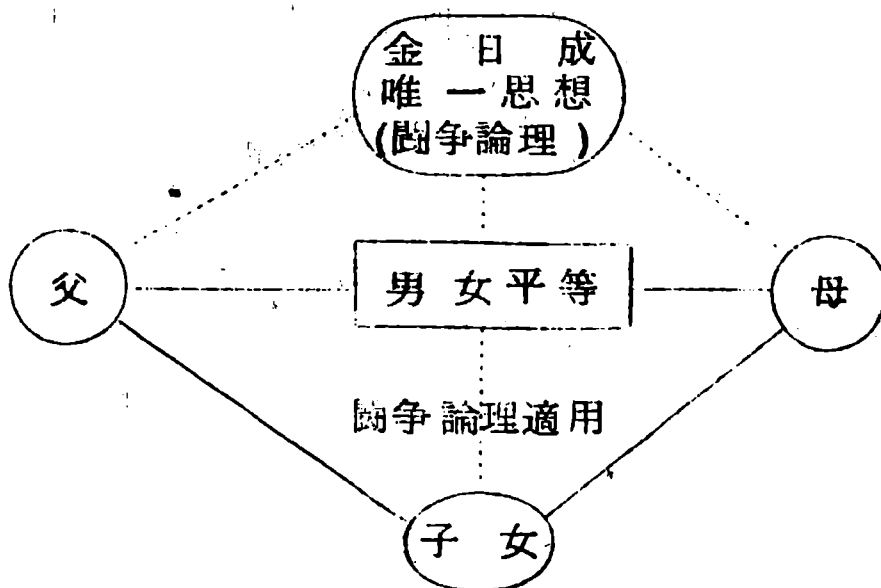
1) 家族制度의 概念과 特徵

- 맑스·레닌主義家族概念을 北韓的 特殊狀況(傳統的으로 뿌리 깊은 家族中心文化가 存在)에 變容하여 適用하고 있음
- 精神的側面에서 家庭은 金日成主体思想의 教育道場으로 役割하고 있고 物質的側面에서는 勞動力 道具(人間)를 生産하는 役割을 担当하고 있음(北韓家族法 參照)
- 家族構成員間의 紐帶關係가 金日成에 對한 忠誠強化때문에 極度로 弱화되고 있으며 戶籍制度를 廢止함으로써 傳統的 大家族制를 完全히 破壞하고 核家族制度를 原則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北韓家族法에서는 「國家라는 有機體는 家庭이라는 細胞를 公고히 해야 한다」는 論理的 主張을 하고 있지만 北韓現實은 이와 正反對로 「家庭이라는 細胞는 죽어도 國家라는 有機體는 산다」는 傾向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것은 지난 6月1日에 公布한 「어린이 교양保

育法¹ (註)에서 알수 있듯이 어린이와 父母를 낳때 부터 격리시켜 家庭을 破壞하여 全家庭을 國家化함으로써 金日成 單獨의 아버지만 存在케 하려는 음모임.

2) 北韓特有的 核家族構造와 鬭爭意識

- 核家族構造에서 形成되는 人間行動들을 보면 核家族制는 權威的存在가 二者(男女平等의 原理에 立脚)이기 때문에 對立鬭爭의 論理가 適用되며 戰爭指向的 意識을 形成시키며 血緣的 要素를 輕視케 함
- 이와 같은 核家族制度가 北韓에서 奇怪하게 適用되고 있으며 家族倫理에 있어서도 父母에 대한 孝 或은 사랑이라는 概念은 完全히 否定되고 金日成에 對한 忠誠만을 強調하고 있는바 이러한 事實은 人類歷史上 類例를 찾아 볼수 없음.
- 이와같은 北韓特有的 核家族構造를 圖表化해보면 다음과 같음.(69).



註(69) 李光奎, 家族構造와 人性에 關한 問題, 서울大學校 論文集 p. 277.

- 따라서 北韓의 核家族構造는 소위 '어버이 首領 金日成'을 神主로 모시는 家庭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家族構成員 相互間에는 단지 本能的인 原始的 血緣的 紐帶關係만이 存在할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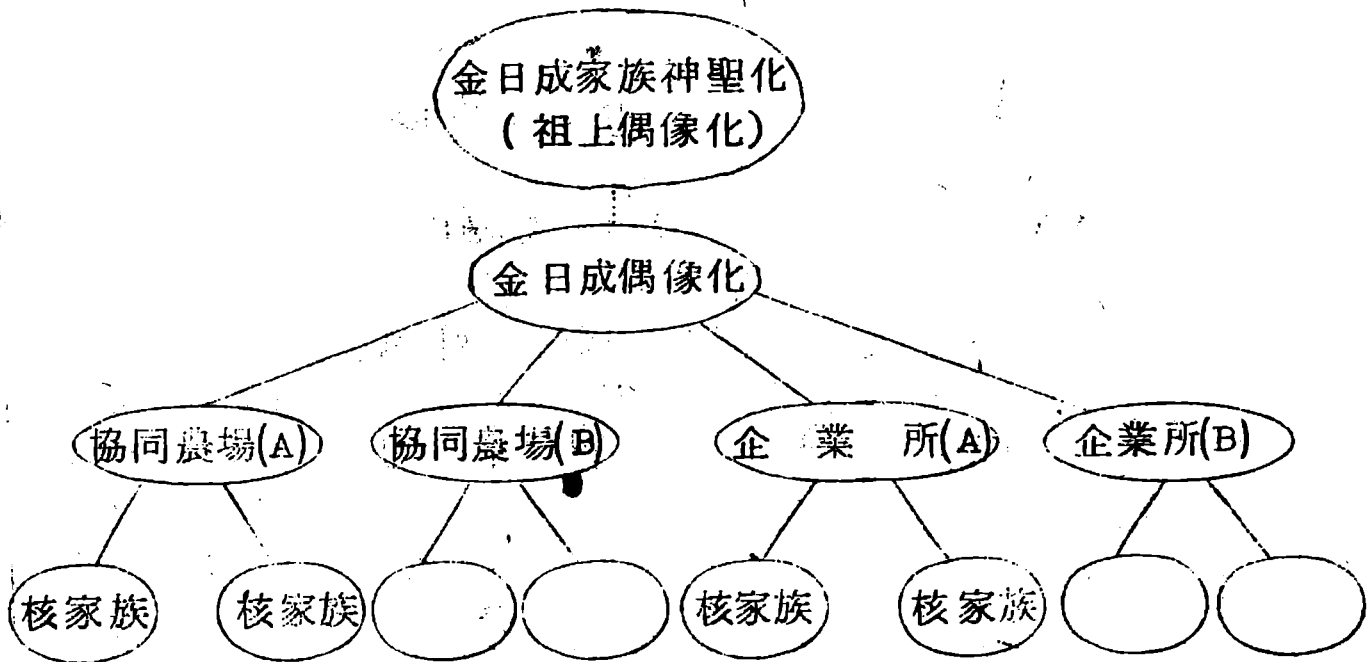
(다) 國家社會組織

- 北韓의 國家社會組織을 보면 社會가 國家속에 埋沒됨으로써 其實 國家와 社會가 分化되지 않고 統合되어 있으며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와 같이 市民社會가 存在하지 않는 實情에 놓여있음 (여기서 使用하는 國家概念은 그 內容이 自由社會의 國家概念과 相異)
- 勞動者 農民 兵士, 근로인테리에게 主權이 있다 (憲法 7條)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지만 現實的으로는 金日成個人이 主權을 独占하고 있는 北韓의 國家的 機能이 北韓住民의 私生活 大部分까지 統制할 정도로 擴大되어 있으며 世界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수 없음
- 다시말하면 居住移轉, 職業選擇 및 言論의 自由라는 人間의 基本權마저 完全히 否認 抹殺되고 있는 狀態에 놓여있는 閉鎖的 統制體制가 바로 北韓의 國家社會組織의 本質的 內容임
- 그리고 北韓社會構造의 基本單位는 家族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協同農場, 企業所 等の 集團生活體이며 現實的으로 北韓社會는 家族機能이 漸次縮少되고 (例 最近 76年 4月

末에 制定된 어린이 保育教養法이 단적으로 이를 實証) 集團生活體 機能이 擴大되어가는 狀況에 놓여져 있음.

- 이와 같은 特異한 北韓의 國家社會組織을 平面的인 橫的側面과 社會階層構造的인 縱的側面에서 圖表化 해보면 다음과 같음.

1) 橫的 構造



- 協同農場, 企業所 등의 集團生活體 機能擴大 (事實上 社會組織의 基本單位化)
- 家族機能은 漸次 縮少 (集團生活體 속에 埋沒되어 가는 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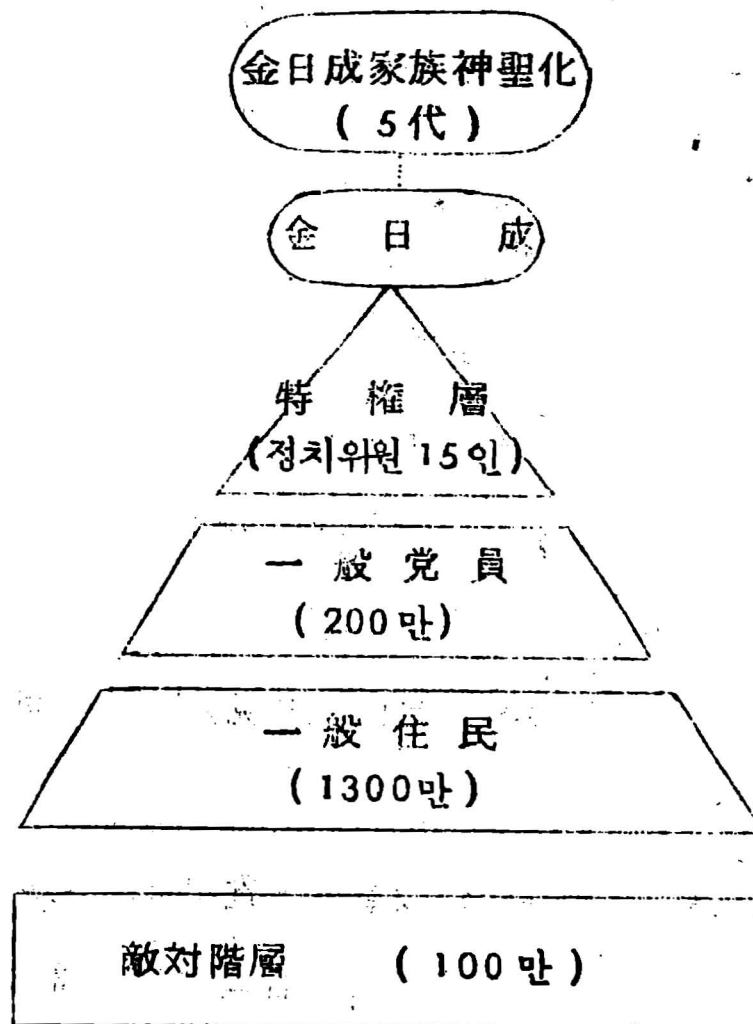
批判分析

- 上記의 圖表에서 알수있듯이 北韓의 社会經濟的 構造를 内部的으로 仔細히 檢討해보면 多數의 獨立된 集團生活体 (協同農場, 企業所) 로 分化되어 있으며 協同農場相互間이나 企業所相互間 또는 協同農場과 企業所間에는 相互紐帶關係가 아주 微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集團生活体 속에 소속된 住民들 相互間에는 公的 國家業務나 限定된 消費生活에 依한 交流關係만이 存在하기 때문에 市民社会가 形成되기는 至極히 어려운 일이며 또한 밑으로 부터의 輿論이 形成될 수 없다.
- 실사 北韓住民이 金日成 極少數 權力 集團에 對한 不滿이 強하더라도 그 不滿이 北韓住民 全體의 社会的 輿論으로 形成될 可能性은 至極히 微弱하다.
- 이와같이 多數의 集團生活体로 分裂되어 있는 北韓의 社会經濟構造的 側面을 政治權力的 立場에서 分析해볼때 金日成 個人을 頂点으로한 極少數權力集團이 政權을 長

期的으로 維持하기에는 至極히 便利하고 容易한 社会經濟 構造라 하겠다.

- 金日成 30年 集權의 秘訣은 社会構造的으로 볼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와같은 社会的 与件下에서 는 金日成偶像化와 權力世襲化 傾向이 必然的인 結果이라고 생각된다.

2) 縱的構造



- 階層間的 垂直的 移動不在
- 인도의 身分秩序的 카스트制度 보다 더 嚴格한 새로운 形態의 階級制度
- 極少數의 金日成 派 寡頭集團이 30 餘年間 集權
- 敵對階層은 越南者家族, 南韓出身者 및 反黨分子

批判分析

- 社会葛藤理論 (다렌돌프等)에 立脚해 볼때 階層間的 垂直的 移動이 不在하기 때문에 黨員과 一般住民間的 潛在的 對立 意識이 深刻할것임 (70)
- 金日成에 對한 忠誠度가 出世의 最高基準이 되고 있으므로 政治性이 強한 特殊黨員層과 專門性을 띤 合理的技術 專門 家黨員層間에 葛藤이 크게 存在할것임
- 傳統文化와 日帝教育의 影響을 받았든 40代以上の 住民과 金日成 主体思想 教育만을 받았든 30代以下の 住民사이에 存在하는 世代間的 乖離現象은 黨員, 非黨員을 不問하고 크게 깊이 存在할것임
- 金日成 極少數權力集團이 經濟建設을 推進하고 北韓社會를 工業化 産業化함에 따라 比例的으로 合理的인 새로운 專門

註 (70) Ralf Dahrendorf, Zu einer Theorie des Sozialen Konflikts, Hamburger Jahrbuch fü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 3 (1958), SS, 170 170-183

的 技術官僚層의 數가 增大될 것이며 이로 因해 非合理的인 金日成 權力集團에 對한 抵抗勢力이 增大될 것임

- 오늘날 金日成權力集團이 南北對話를 拒否하고 北韓社會의 開放化를 反對하고 있는 基本要因中的 하나가 바로 여기 에 있다고도 볼수 있음

(라) 小結論

- 오늘날의 北韓은 社會構造的으로 볼때 하나의 社會共同體로 統合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多數의 集團生活體로 分裂되어 있으며
- 政治的으로는 金日成 極少數 權力集團과 北韓住民間에 潛在的인 깊은 葛藤이 存在한다.
- 따라서 北韓社會가 開放化되면 金日成偶像權力體制는 必然的으로 崩壞할 것임.

(3) 北韓住民意識構造 (71)

(가) 意識形成要因

1) 思想

가) 金日成主體思想은 本質的으로 鬪爭性, 戰爭指向性을 內包하고 있고

나) 北韓人 意識形成의 決定的 要因이 되고 있을 것이며

다) 따라서 北韓住民의 意識도 盲目的인 戰爭指向的 鬪爭性을 띄고 있을 것임.

註 (71) Ralf Dahrendorf 의 社會葛藤理論과 Erikson, whiting 等の 社會心理學 乃至 精神分析學의 方法에 立脚하여 北韓住民 意識構造를 理論的으로 分析

2) 教育

- 가) 金日成思想을 北韓住民에게 每日 2時間式 教育하고
- 나) 파브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에 立脚하여 반복 세뇌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教育 또한 重大한 역할을 할것임

3) 組織動員生活

- 가) 탁아소, 유치원, 3대 革命小組運動, 사로청, 붉은 청년근위대, 3대 문화기술 革命運動等 여러組織 및 動員運動을 통하여 北韓 全住民을 2重 3重으로 組織에 加入시키는 한편 戰時動員練習을 시키기 때문에
- 나) 이것이 또한 北韓人 意識形成에 重大한 要因이 될 것임

4) 社会階層構造의 硬直性

- 가) 金日成을 頂点으로 한 極少數 特權階 (党政治委員 15名) 이 30餘年間 政治權力을 独占하고 있고 勞動黨員 (200萬名) 과 非黨員 北韓住民 (1,300萬名) 및 反金日成敵對疎外階層 (100萬) 間의 社会的 垂直的 移動이 거의 完全不在하기 때문에 (일종의

印度의 身分制的 카스트制度와 類似)

나)北韓住民의 意識이 所屬된 社会階層에 따라 相當한 異質的 差異가 存在할것임

5) 世代差異

가) 解放世代인 30代를 分岐点으로 하여北韓人の 意識 構造가 兩極化되어 있을것임

나) 30代以後는 韓國傳統意識이 強할 것이며 30代以前은 金日成式 共產主義的 意識이 強할것임

(나) 住民意識構造에 對한 理論的 考察

1) 特權層 (黨政治委員 15名)

- 金日成에게 盲目的으로 忠誠할 것이며
- 金日成行態와의 同一性을 追求할 것이며
- 매우 動的이며 活動的일 것임
- 그러나 大部分 50代~60代年令層이기때문에 共產主義理論은 잘 모를 것이며 韓國의 傳統的 意識이 強할 것임

2) 勞動黨員層 (200 萬)

가) 黨 性

- 金日成에 盲目的 忠誠을 나타낼 것이며 特히 200 萬 黨員은 過剩忠誠競爭을 벌리고 있을 것임
- 매우 活動的으로 일을 追求하되 特權層에서 派生되는 派閥意識 때문에 때로는 急激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할 것임
(例, ○○年 1. 21 事態는 김정태의 좌절감에서의 脱出을 기도한 것으로 볼수 있음)
- 金日成主体思想을 盲目的으로 暗記해도 共產主義의 本質的 內容은 모를 것임
- 전문성 黨員의 合理的 思考方式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며 思考方式 自体가 非合理的이고 情意的일 것임

나) 專 門 性

- 外形的으로는 金日成에 忠誠하되 内面的으로는 金日成交시에 회의적 態度에 자주 빠질 것임
- 黨性의 勞動黨員과는 자주 意見衝突을 일으킬 것이며 特權層 (黨政治委員 15 名) 의 非合理的 政策 決定에 合理的 批判態度를 取할 것임

- 40代以上の 専門性 黨員은 韓国の 伝統意識이 無意識속에 깊이 内在하고 있을 것임
- 金日成主体思想에 批判的 態度를 取할것임

다) 世代差異

- ① 30代以後의 黨員은 韓国の 傳統意識이 強하게 남아 있을 것이며 共產主義理論과 金日成主体思想에 대해서도 內面的으로는 批判的인 可能性이 存在하고 民族意識이 無意識面에서는 깊이 内在하고 있을 것임
- ② 30代以前의 靑少年 黨員은 金日成主体思想의 影響을 상당히 받아 性格이 공격적이고 好戰的인 것이나 無意識面에서는 民族精神이 다소 남아 있을 것임

라) 小結論

- 200万 黨員内에서도 党性과 専門性的 葛藤, 世代間的 葛藤이 外形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內面的으로는 깊이 存在할 것임

3) 인테리階層

- 가)北韓의 인테리는 完全히 政治權力의 侍女役割을 하고 있으며
- 나) 學問의 自由를 全然 누리고 있지 못함
- 다) 現在 北韓에서는 哲學思想研究는 거의 不在狀態이며 단지 金日成 主体思想을 合理化하는 弘報的 研究만 하고 있음
- 라) 그러나 國史 및 自然科學, 技術系統 研究는 政治權力의 支援下에 一定한 테두리 속에서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함
- 마) 따라서 인테리階層의 意識構造는 深刻한 內的 葛藤 現象속에 있을 것임

4) 非黨員 北韓住民層 (1,300 万)

- 가) 社會的 垂直的移動不在로 인한 黨員 階層과의 葛藤 意識이 內面的으로 深刻할 것이며 그러나 外形的으로는 불만의식을 表示하지 않을것임
- 나) 그러나 內的意識과 外的態度와의 不一致때문에 精神 構造上으로 不安意識이 強할 것이며
(社會心理學 理論參照)
- 다) 精神分析學的 Reflection 理論에 依하면 깊은 內面 속에 金日成에 對한 敵對意識이 強하기 때문에 外形的으로는 金日成에 對해 過剩忠誠을 表示하고 있을것임

라)北韓人들은 金日成主体思想을 그저 盲目的으로 暗記한 따름일 것이며 그러나 파바로프의 反復的 세뇌教育影響때문에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性格이 거칠어지고 變化하고 있을 것임 (金日成思想의 對立鬭爭性 影響)

마)北韓住民 가운데 都市人들이 보다 金日成思想의 影響을 많이 받아 戰鬭的이고 공격적일 것이며 農村人들은 다소 전통적 가족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임

5) 小結論

가)北韓住民은 外形的으로는 金日成思想과 金日成을 頂点으로 하여 精神的으로 組織的으로 強하게 단결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나

나)內面的으로는 깊이 理論 (社会葛藤理論과 社会心理学 및 精神分析学)的으로 分析해 보면 北韓社会階層과 北韓住民의 意識은 깊이 分裂되어 있음

다)따라서 金日成은 北韓内部的 分裂을 防止하고 政權의 安定을 유지하기 爲해 南北對話를 完강히 거부하면서 閉鎖密封体制를 強化하고 있음

(다) 住民意識構造에 對한 實証的 分析

1) 問題点

- 北韓住民意識構造를 科学的으로 診斷하려면 理論的 分析으로 끝나서는 無意味하며 現代的인 社会科学的 調查方法에 立脚하여 實証的으로 分析해야 함

- 北韓人意識狀態에 對한 理論的 批判이 과연 現實的으로 妥當한 것인지 그 如否를 實驗科學的으로 檢證해야 함
- 檢證方法으로서는 社會心理學的, 精神分析學的 方法을 動員하여 인터뷰, 設問書 作成等을 通해 意識狀態를 客觀的으로 診斷해야 함

2) 解決策

- 本 理論的 資料를 토대로 하여 現在 大韓民國에 自首한 間諜, 또는 在所間諜을 對象으로 하여 實驗科學的으로 意識調查를 함으로써
- 北韓住民의 意識構造를 거의 正確하게 把握 診斷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됨 (當院에서 次後에 調査 補充할것임)

3. 專 門 家 討 論

3. 專 門 家 討 論

가. 個別 質疑 回答

(1) 5千年 歷史를 가진 韓民族의 民族正氣와 傳統的 韓國人의 氣質 및 性格에 對해 말씀해 주십시오?

(答 : 李丙燾 博士)

○ 우리의 5千年 歷史를 꿰뚫어 흘러오는 正統的 原理에 對해 나는 年來 새가지의 類型을 抽出해 보았다. 하나는 平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는 不義不正에 對한 排擊精神이요, 또 하나는 教育과 文化를 尊重하는 것이다.

우리 民族은 古來로 農耕民族이기 때문에 平和愛好的이고 現實을 즐거하였으며 너무 樂天的이고 향락적인 것이 오히려 短点이었음. 그리고 對外的으로 外交戰이나 武力戰에 있어서도 언제나 한바탕 싸움을 한후에 손을 들었지 그 냥은 苦痛한 일이 없었음

文化教育에 對한 尊重熱이 대단하여서 高麗時代를 보면 글안과 戰爭時에도 學校를 세웠으며 이러한 傳統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음.

해방후나 6.25 動亂時에도 大學, 中高等學校 등이 속속 設立 되었음

0 또하나의 民族史的 傳統은 百姓을 尊重하고 輿論을 尊重하는 民主主義인.

高句麗, 百濟의 部族長會議나 新羅의 화백制는 모두 万場一致制이며 高麗의 도병마사사도 마찬가지임. 이와같은 會議制的 傳統이 李朝 議政府에 그대로 내려왔음.

그리고 輿論과 公論을 重視하여 임금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으며 主要한 일은 반드시 百官會議에 맡겨졌음. 王命과 朝廷決定에 異議가 있으면 白頭書生이라도 上訴할 수 있는 上訴制(千人訴 萬人訴)가 있음.

이와같은 民本主義傳統은 民主主義라면 좀 어찌가 있고 百姓爲主, 輿論爲主의 傳統으로 볼 수 있음.

0 그리고 우리民族의 短点を 살펴보면 愛憎이 심하고 소소한 일에도 是非를 따지는 偏頗性 있고 形式主義에 치우치는 傾向이 농후한데 이것은 山嶽이 70% 차지하는 風土地理的 要因에서 由來되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와같은 短점은 先天性이 아니라 後天的인 것이므로 教育으로 고칠수 있다고 생각됨.

(2) 北韓 金日成權力專制이 韓國歷史를 人民鬪爭史로 變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1930年代 金日成 抗日武裝鬪爭運動을 捏造하여 소위 金日成 主体思想을 내세우고 北韓住民을 鬪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捏造歪曲된 歷史觀에 어떻게 對処하여야겠읍니까?

(答 : 李丙廉 博士)

0 北韓이 주장하는 歷史는 전부 捏造된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歷史가 아니다.

主体性 云云하는데 이것은 全然 말이 되지 않으며 金日成 主義란 教条主義에 不適當.

그들은 科學, 科學하면서도 가장 非科學的으로 歷史를 研究하고 있음.

(3) 오늘날의 南北韓住民 意識構造속에는 花郎道 精神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精神科學的 立場에서 볼 때 花郎道 精神이 아직도 北韓住民意識속에 살아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答 : 白尙昌 博士)

0 프로이드 제자인 칼. 쿠스타프. 융에 의하면 집단무의식은 수천년 역사기간동안 한 개인에게 遺傳的으로 傳來된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集團無意識理論에 立脚해서 볼 때 南北韓住民 모두의 個人無意識 밑바탕에는 어떠한 우리民族의 集團無意識이 있는것으로 確信함.

解放以前에는 古代로부터 脈脈히 흘러온 集團無意識이 南北韓住民에게 共通으로 存在해 있었는데 南北分斷以後 南北韓 共히 세계적으로 獨特한 精神構造를 形成하고 있는것으로 推定됨.

0 北韓住民의 精神力動學을 考察해 보면 金日成個人的 性格構造와 北韓住民 1,500萬人間에 이루어지는 巨大한 民族的 悲劇이라고 말할 수 있음.

金日成의 性格構造가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에 미친 影響은 다음과 같음.

첫째 1945年 解放當時, 抗日的 英雄으로 알려진 金日成將軍의 이름을 盜用한 가짜 金日成은 行패가 심한 시베리아 포로수용소 出身의 소련軍을 용이하게 다룰줄아는 무당으로 登場하였으며 이것은 北韓住民의 意識속에 깊은 影響을 끼쳤을 것임.

둘째 1950年 6.25 動亂으로 인한 殺人, 放火, 죽음, 離別 등의 精神的 아노미 現象때문에 脫文化的, 準動物的 意識이 助長되었을 것임.

셋째 1955年以後 金日成 1人獨裁體制 構築을 위한 連續的인 殺人, 肅清作業과 千里馬運動, 알곡增産運動, 其他條件反射的인 學習運動 등이 北韓住民에게 커다란 影響을 주었을 것이며 北韓住民은 不安과 공포의 狀況에서 살아남기 爲해 金日成에게 外形的으로 無條件 服從하는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임.

넷째 마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란 妙한 解釋을 하는 金日成 唯一思想과 이를 土台로한 個人偶像化運動은 매우 큰 影響要素임.

다섯째 南北對話以後 外交的 제스처를 통해서 보여준 南朝鮮解放이란 노름이 큰影響要素임.

上記와 같은 金日成 個人的 政治的行態에 依해 影響을 받고있는 北韓住民의 意識構造를 보면

첫째 北韓住民은 自由를 모르고 命令만 기다리는 機械的 受動的 存在와 같이 自動機械的인 服從 (Automatic Obedience)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것은 精神分裂症現象에서 볼 수 있음.

둘째 한계단 옥타브 올라갈 때 妙한 高音을 發하는 아나운서의 音聲은 마치 精神分裂症者의 소리와 類似하며 이 소리만 듣고도 住民사이에 깊은 不安感, 공포感, 憎惡感이 存在하고 있음을 알수있음.

특히 外國人에 對한 嫌疑症이 強함.

셋째 金日成이 抗日運動의 偉大한 指導者요 무서운 귀신같은 存在이기 때문에 北韓住民은 金日成에 對한 假同一視現象 (Pseudo - Idendificion) 을 나타내고 있음,

下部階層의 一部는 내가 卽 金日成이다라는 極端的인 同一視現象을 나타내고 있을것임.

넷째 外部로부터 오는 사람은 모두 敵이다라는 外國人 嫌疑感情과 強한 恐怖感을 가지며 마음의 門을 닫는 性格的 閉鎖性을 가지고 있음.

이와같은 思惟의 閉鎖性으로 北韓住民은 現實을 外面을 하
고 忘想的世界로 後退하여 이른바 프로이드가 말하는 退行
現象을 나타내고 있음.

다섯째 北韓住民은 極度의 疎外現象으로 因해 自己를 虐待하
고 他人을 虐待를 하며 執拗한 殺人衝動을 가지는 精神分
裂症的인 증후를 보여 줄 것이며. 이와같은 現象은 特殊層에
많을것임.

여섯째 1,500万 北韓住民中에 상당수가 “反影된 自我像”을
가진 눈치보는 存在로 化하고 있으며 特히 高位層에서는
金日成에게 認定받고자 하는 과잉競爭, 과잉緊張속에 있을
것임.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와 눈치보는 나로 分離되어있는
面從腹背型人間의 二重的 人格者가 늘어나고 있음.

일곱째 下級將校와 下層民間人은 悲慘한 狀態에서 自己 憐
憫에 빠져 南朝鮮 人民을 慘相에서 救해야 한다는 妙한
使命感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것임.

여덟째 北韓住民은 本能的으로 大家族, 所有欲, 宗教等에 對
해 渴求하는 過去指向的인 集團深層心理를 가지고 있을것이
며 이와같은 現象이 特히 40代 以上の 住民에게 많을
것임.

(4) 新羅가 三国統一을 함에 있어서, 決定的 役割을 한 元曉의

和靜思想에 對해 說明해 주십시오

또한 同和靜思想이 오늘날 南北韓間思想 對立 克服에 精神的인 힘을 發揮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 金炯孝 博士)

0 우리民族의 過去思想은 샤머니즘 仏教, 儒教를 三大支柱로 하여 形成되고 있으며 元曉의 和靜思想도 샤만의 世界와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음.

우리民族이 가지고 있는 原初的 環境의 感情的 範疇인 集團無意識은 바로 신바람이며 이 신바람은 韓國人의 獨特한 體質인 沒我的 境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

신바람의 샤만 儀式을 前提하지 않고는 新羅의 花郎道와 우리民族의 集團的動力의 表現인 3.1運動을 根源的으로 解明할 수 없음.

단적으로 말하여 檀君精神의 로고스와 파토스를 잇는 媒體의 核心은 신바람이고 이 신바람은 우리民族의 集團無意識으로 지금까지 不變의 原動力으로 남아 있음.

우리民族의 샤만意識인 신바람은 에나 지금이나 하나의 對象에 100%로 沒入하는 狂氣와 對象과 100%로 混然一致되어 확 풀려는 意識, 卽 相反된 2가지 意識을 가지고 있음 初章인 点指向性의 狂氣와 中章인 확 풀려는 意識은 서로

正反對의 劇的 現象임.

한국인의 氣質性格을 特徵지어주는 신바람은 歴史的 側面에서 볼 때 장점으로서는 護國精神, 藝術創造, 不義에 對한 抵抗으로 나타났으나 단점으로서는 意識의 極限對立으로 나타났음.

신바람이 有機的 共同意識을 잃으면 各者 모두가 巫堂이 되어 混亂을 가져 옴.

오늘날 北韓의 金日成思想은 신바람의 短點과 결부되어 民族의 에너지를 病理現象으로 물고가고 있음.

○ 元曉는 上記와 같은 우리民族의 신바람文化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 신바람의 逆機能을 治療하기 爲해 和靜思想을 定立했으며 이리하여 우리民族의 固有氣質인 신바람을 創造的 熱情의 方向으로 인도한 最初 思想家가 되었음. 元曉가 말하는 同異와 有無의 對立을 越越하는 論理는 「同異가 같다고 하면 內部에서 相爭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들이 밖에서 서로 相爭할 것이기에」 非同 非異의 哲學으로 이어지며 싸움을 지양하자는 論理임. 卽 同은 異가 있으므로 同이고 異도 同이 있으므로 異가 形成되기 때문에 同異는 不一, 不二가 됨.

이와같은 元曉의 和靜思想은 오늘날 南北韓分斷을 克服하고 새로운 社會를 만드는데 큰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임.

이와같이 元曉는 신바람을 否定한것이 아니라 신바람의 病

理的일·수 있는 要素를 가장 크게 最初로 診斷한 知性인 李朝 栗谷先生도 이 點에서 元曉와 同一하며 偉대한 哲學者임.

仙敎思想의 真髓인 円融性이 타락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되며 儒敎思想의 核心인 方正性이 타락하면 党派性, 偏狹性, 我執性에 빠지기 때문에 이를 깊이 경계해야 함.

正統性은 過去의 tradition 뿐만 아니라 未來의 Legitimacy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 正統性을 이어 받기 爲해 샤마니즘 仙敎, 儒敎의 價値體系를 새로운 社會에 어떻게 부합시켜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며 또한 北쪽과의 對決에서 이기기 爲해서는 國防力, 經濟力, 精神力을 三位一體化 시켜야 함 샤마니즘, 仙敎, 儒敎에서 發揮하는 精神的 힘을 國防力과 連結시켜야 함. 다시 말하면 沒我的인 衝動的 無意識氣質인 신바람을 次元높은 哲學과 連結시켜 國防力의 精神的 土臺로 삼아야 함.

軍民一切感이 造成될때 軍인의 신바람이 생기므로 民間人과 軍人間의 一切 乖離感을 없애야 함.

軍은 平和時에 하나의 巨大한 敎育集團인바 軍敎育과 民間敎育間의 二元的 分離現象은 國民의 精神健康에 좋지 못함. 새 마을 運動을 經濟運動에서 民族的 精神運動으로 昇華시키

고 신바람을 共同体形成의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함.

傳統的 價値의 土台위에서 未來指向的인 靑寫眞을 提示해야 함.

) 退溪의 敬思想과 理氣互發論의 現代的 概念속에서 南北間의 思想對立을 克服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런지 說明해 주시요.

(答: 柳正東 博士)

○ 退溪, 栗谷의 理氣論은 弘益人間에 注意를 두고 人間의 立場에서 出發하고 있는바 이것은 世界的으로 자랑할 수 있을 것임.

退溪의 理氣互發論은 人間的 意味와 깊이 連關되고 있으며 中國學說과 比較해서 볼때 人間의 心性을 다루었다는 點에서 커다란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民族의 長點에서 볼때 당연히 나올수 있었던 哲學이, 아닌가 생각됨
退溪는 奇高峯의 理論的 挑戰을 理解하면서 理氣互發說을 고치지 않았으며 理氣互發說의 人間中心思想은 檀君以來의 長點으로 看做할 수 있음.

退溪는 奇高峯과의 論爭에서 理氣互發說의 미흡한 點을 自認했지만 그 長點을 밀고 나갔음.

○ 退溪 栗谷이 處하고 있었던 時期는 李朝宣祖初期였으며 退溪는 宣祖가 17世에 登極할 時에 聖學十道를 바쳤으며

栗谷은 宣祖가 22살때에 聖學輯要를 바쳤음.

宣祖大王이 40歲가 되는 해에 우리 民族史에서 가장 큰 國難인 壬辰倭亂을 당하였으며 退溪, 栗谷의 理氣論은 宣祖大王의 倭敵防禦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思料됨.

이렇게 볼때 退溪, 栗谷의 理氣論 속에서 오늘날 南北統一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國民의 總和團結은 善에 對한 自負에서 그 求心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善의 自負를 實現하는 道場인 家庭이 오늘날 四分五裂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問題임.

따라서 가정의 混亂을 政治力으로 是正하여 總和團結의 基礎를 공고히 해야 할것임.

(6) 北韓은 理氣概念 가운데 氣概念을 西洋哲學의 物質概念과 機械的으로 連結해서 同一視하고 氣一元論을 主張한 徐花潭을 偉대한 唯物論者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氣와 物質概念을 同一視할 수 있습니까?

(答: 柳正東 博士)

○ 徐花潭이 말하는 氣의 世界는 太虛를 말하는 것이며 花潭은 氣先理後를 主張했기 때문에 主氣的인 觀點으로 나아갔음.

栗谷의 眼目에 立脚하여 볼때, 花潭이 理通 世界가 未洽
하다고 보는 경우 花潭은 唯物論者로 떨어질 可能性이 存在
또 退溪의 眼目에 立脚하여 볼때 退溪는 花潭이 形器落在
一辺한 것으로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花潭이 唯物論者로
떨어질 可能性이 存在

理筌, 氣筌의 用語를 使用하는 경우 事實現象을 表現할 때
의 論理性을 된 表現으로 使用할 때를 區別해서 보아야 함.
北韓에서는 理通의 世界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으며 氣筌이
라는 現象性을 찬성하여 栗谷을 다소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음. 그리고 理筌를 觀念이라 하여 退溪를 배격하고 있
음.

그러나 北韓은 退溪 栗谷의 理先氣後를 모두 비난하고 있
으며 花潭의 氣先理後를 唯物論立場으로 看做

○ 그러면 氣와 物質의 概念을 同一視할 수 있을 것인가?

栗谷의 表現을 빌리자면 理之源, 氣之源一也라 하였으므로
窮極으로 따져 올라가면 하나의 世界에서는 理氣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栗谷은 物質의 永遠性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物質
의 現象變化가 끝없이 되풀이 한다는 점에서 永遠性을 말
하고 있으며 이를 氣의 永遠性으로 보고 있는 것임.

따라서 花潭이 생각하는 氣의 世界와 唯物論者들이 宇宙의
始源으로 생각하는 物質의 世界와 그리고 栗谷이 생각하는

氣之源 理之源一也라는 世界와는 차이가 있음.

- (7) 소위 金日成 主体思想의 本質的性格은 어떠한가 소련의 現代 修正主義 理論과 中共의 毛沢東思想과의 差異點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오

(答: 林錫珍博士)

- 現代思想의 二大潮流인 맑스主義 (맑스, 엥겔스) 와 實存思想 (키에케골) 은 19世紀初葉 헤겔의 白林大學講義에서 그 시작을 始作했음.

헤겔은 머리를 땅에 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出發한 맑스主義 正統思想에 對한 解釋을 놓고 20世紀 後半에 들어와서는 修正을 加하는 運動이 일어났으며 特히 西獨과의 對決속에서 活路를 찾아야 할 東獨에서 1950年代初半期에 맑스主義에 對한 理論的 研究가 活潑히 이루어 졌음.

이 當時 北傀도 大量의 留學生을 東獨에 파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유학생들이 좁은 範圍이겠지만 현재 北韓社會 内部 어브 구석에 있을 것임.

스타린死後 후로시초프가 登場한 以來 蘇聯을 中心으로 한 東歐共産圈에서는 맑스즘의 現代修正主義 理論이 登場하기 始作하여 차유의 物결이 싹났음.

그리고 東歐共産圈 社會内部에서는 多極化 現象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傳統的 맑스主義에 對한 修正主義 物결이

現代 共產主義 大衆인 蘇聯을 中心으로 東歐國으로 퍼져나
가고 있음.

한편 中共에서도 1950年 以前, 毛沢東이 大陸을 席捲한
初創期에서부터 이미 蘇聯과 다른 獨特한 中國的인 共產主義
社會類型이 나타나기 始作했음.

● 北韓社會에서는 正統性 있는 馬斯主義 理論自体가 全然 소
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根本的인 側面에서 沒知覺한 方
向으로 이끌어지고 있음.

金日成은 馬斯主義를 소화해서 主体的으로 適用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主体性에 對한 理論的인 것은 찾아 볼수
없음.

예를 들어 1954年 發刊된 朝鮮哲學史 上卷을 보면 理氣
論과 社會發展 法則을 論하고 있는데 그 學問的 水準은
아주 낮음.

全體的인 理論體系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理氣論解狀에 있
어서 北韓이 主張하듯이 氣 概念을 과연 現代的 意味의
物質概念과 同一視할 수 있는 것인지 疑問이 됨.

理氣는 하나이면서 또한 두개로 나눌 수 있다는 東洋的
論理構造를 볼때 氣 概念은 一辺倒的으로 말할 수 없는
보다 深奧한 意味를 가지고 있음.

北韓은 理論的인 學術研究機關으로서 科學院, 金日成大學 等
極少數의 機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機關에서 研究發表된

論文自体가 主体思想과 連結되어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學術的 價値가 없음.

北韓은 自己 理論의 正當性에 대해선 덮어버리고 南朝鮮은 傀儡다 하면서 南쪽에 對한 批判만 일삼고 있지만 南北問題는 戰略이나 一時的 戰術에서 끝날 수 없는 보다 더 깊은 問題가 內包되어 있음.

- 元曉의 和靜論理, 退溪의 理氣論 等 古典을 通해서 찾을 수 있는 값진 精神的 遺産을 中心으로 하여 우리의 獨自的 씨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우리의 古典은 西洋的 論理하고는 類를 달리하는 獨自的 思想의 씨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要素가 開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朴鍾鴻博士가 韓國思想史에서 和靜思想을 非論理의 論理이며 非合理의 合理이라고 主張하고 있듯이 元曉의 和靜論理와 退溪의 理氣論은 西洋論理와 全然 区分되는 東洋의 獨特한 論理로서 中國的 傳統과도 區別되는 獨創的인 씨앗을 가지고 있음.

- 이와같은 韓國의 獨自的 要素를 分明하게 치밀하게 理論的으로 開發하고 特히 現代思想인 黑格의 辨證法과 關聯시켜 깊이 파헤쳐 볼 必要性이 있을 것으로 思料됨.

- 黑格의 辨證法에 對해 밝히는 觀念 辨證法이라고 非難하면서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날 날카로운 哲學思想家, 自然科學者들이 修正的 見解를 내놓아 論爭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보고 알 수 있듯이 헤겔의 辨證法은 간단히 一直線으로 處理될 수 없음.

이러한 現象은 毛沢東思想이라고 하여 独自の 路線을 開發한 中共의 境遇나 中蘇紛爭을 통해 分明히 나타나고 있음. 論理構造를 圖式으로 說明해 볼 때 두개의 円이 部分的으로 重複되는 경우 그것은 하나도 둘도 아닌것이 되어 完全한 對立도 아니고 完全한 和合도 아닌 東洋的 論理가 되는데 이것을 헤겔의 辨證法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음.

중복되어 있는 조그만 正의 側面과 反對되는 對立的 側面에서 重複되고 있는 조그마한 反의 側面을 서로 中間에서 이어주는 中心點이 바로 重複된 正反의 思想을 反對쪽에서 서로 이어주는 中間子 임.

其實 이 中心點이 그 무엇인가 가장 깊은 辨證法 運動의 核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됨.

數字로 表示하면 東洋의 五行思想에서 볼 수 있듯이 5數字를 놓고 그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 中心點이 됨.

이렇게 생각할 때 不一不二的 和靜論理는 심오한 論理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몇가지 側面을 놓고 具體的 研究가 可能할 것으로 생각됨.

理氣論에서 말하는 氣概念은 現代的 物質概念과 內的 聯關

성을 어느정도 맺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北韓의 朝鮮
哲學史 上卷에서 보듯이 단순한 論理에 依해 간단히 規定
될 수 없을 것임.

西洋哲學에서도 物質概念을 위요하고 社會主義 陣營의 哲學
者, 自然科學者들이 近 20年 가까이 論爭을 벌리고 있음.
東獨物理學者 로버트 하베만이 내세운 修正主義 理論의 骨
字를 보면

自然科學的 因果法則도 必然의 關係로 解釋할 것이 아니라
確率的인 性質을 띄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음.

自然의 發展法則과 마찬가지로 社會發展의 法則에서도 一定
한 方向으로 發展하다가도 다른 方向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음.

이러한 主張은 原因과 結果의 必然的 關係에 立脚한 自然
科學의 因果法則을 土臺로 規定된 맑스·레닌의 物質概念에
어긋나는 主張이라 하여 結局 하베만은 反黨分子로 몰려
심한 비난을 받았음.

우리나라로의 獨自的인 思考와 論理에 立脚하여 定立된
和靜論理와 理氣論은 西洋的인 進取的인 要素를 撰取함으로
써 西洋과 東洋의 架橋를 놓을 수 있는, 틈바구니를 파헤
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8) 性理學의 理氣概念에 關係 化學的 立場에서는 어떻게 보고져
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答 : 최삼근博士)

○ 自然現象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自然自体가 가지고
있는 現象을 사람이 發見하는 것임.

自然科學은 하나의 description으로서 蘇聯이나 美國이
解釋하는 立場과 方向은 다르다 하더라도 原理原則은 같음
예를들면 로케트는 自然科學의 모든 知識을 總和해서 만들
은 作品인데 蘇聯과 美國이 各各 相異한 理論에 立脚하여
자기 나름대로 로케트를 만들었지만 그 結果는 마찬가지임.

○ 氣를 物質로 보고 理를 精神으로 보는 경우, 理를 이해하
려면 物質없이는 理解不能한 것으로 생각됨.

物質은 質量, 무게, 型態을 가지고 있으며 物質自体의 特有
한 物理的 化學的 性質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면 固体라면 녹는점, 액체라면 끓는점이 다르고 光
學的 性質이 다르며 어떤 化學的 性質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化學的 反應이 다름.

物質을 構成하는 分子, 元子, 電子가 있고 核안에는 中性子
中間子와 같은 素粒子들이 있는데 素粒子들이 어떻게 해서
元子を 이루고 元子が 어떻게 해서 分子를 이루고 微視分子
가 어떻게 해서 巨視分子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確

爽히 알지 못하고 있음.

이것을 勘案해 볼때 物質이 變하여 다른 物質이 될 때 同伴되고 있는 物質의 性質이 바로 理가 아닌가 하고 생각됨.

物質은 그 自体의 物理的, 化學的 性質에 의해 무한히 變化하고 物質内部는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勤的으로 把握할 수 밖에 없음.

物質의 變化를 보면 物質의 熱力學狀態가 不安全한 狀態에서 安全한 狀態로 變化하는 것이 自然現象임. 이것은 마치 물이 흐를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물질의 잠재적 에너지가 높은 것에서 낮은 安全한 狀態로 흐르는 것임. 쇠가 녹이 썬어 산화철이 되는것도 不安全한 狀態에서 安全한 狀態로 變化하는 것임.

이와같은 物質의 變化原理를 一種의 辨證法 論理로 解釋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物質은 그 自体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元자가 反應해서 分子를 이루듯이 分子가 分子끼리 反應해서 새로운 어떤 分子를 이룰때 반드시 熱力學的 變化를 隨伴하게 됨:

反應作用에는 發熱反應과 吸熱反應이라는 두가지가 있는데

發熱反應이 생기는 것은 反應物質의 分子가 가지고 있는

内部에너지 (Internal Energy) 가 生成된 物質의 그것보다

많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分子의 内部에너지를 밖에 내가지고 内部에너지가 적은 새로운 物質로 變할 때임.

또 吸熱反應이 생기는 것은 反應物質의 分子가 가지고 있는 熱이 生成物質이 가지고 있는 熱보다 적을 경우 外部에서 熱을 供給해 주어야 하는 바 이와같은 物質의 變化가 일어날 때임.

物質이 變化하는것 즉 反應物質에서 새로운 物質이 생긴다는 것은 눈에 볼 수도 있고 測定할 수도 있지만 反應속에서 이루어지는 熱의 關係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간접적인 기계로 測定해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內的인 에너지의 關係라고 하는 것이 理氣論에서 말하는 理가 아닌가 하고 생각됨.

이렇게 본다면 氣는 物質로, 理는 物質의 여러가지 化學的 物理的 性質로 規定할 수 있을 것이며 同時에 氣는 理를 包含하고 있고 또한 理도 氣를 包含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物質이란 그것이 가지고 있는 物理的 化學的 性質을 이해한 後에야 비로소 무엇이 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理氣는 서로 分離하고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임.

다시말하면 理를 分離해서 氣를 이해할 수 없고 氣는 自体内에 理를 內包하고 있으므로 理氣는 同一한 것이지 對立的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됨.

氣는 質量形態를 가지고 있으나 理는 눈으로 볼수 없는
것임.

(9) 性理學의 理氣概念에 對해 物理學的 立場에서는 어떻게 보시
는지 說明해 주십시오?

(答: 이상수博士)

○ 自然科學 가운데 物理學은 크게 뉴턴力學, 아이슈타인의 相對
性 力學, 그리고 波動力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唯物論者들은 自己들 唯物論 哲學의 正當性을 主張함에 있
어서 力學의 概念을 많이 利用하고 있음.

뉴턴力學에서 말하는 因果法則은 巨視的 側面에서는 오늘날
에 이르러서도 틀리지 않고 있으며 뉴턴의 세가지 運動法
則은 그대로 通用되고 있음.

그러나 뉴턴力學의 不足點이 들어나게 되었는데 卽 光速度
에 가깝게 運動할 때 自然法則을 修正해야 할 必要性이
提起되었음. 여기에서 아이슈타인의 相對性 力學이 發展되
었음.

相對性 力學에서 보면 物質은 정지질량과 고유질량을 갖고
있으며 速度에 따라 質量이 증가하며 光速度에 이르러서는
變化量이 0임. 그런데 相對性 力學은 物質의 粒子性과
波動性에 對한 矛盾을 解決할 수 없었음.

이와같은 相對性 力學의 不足點을 補完하기 위해 波動 力學

또는 量子力学이 登場하였음.

- 量子力学에서는 粒子를 波動으로 取扱하고 또한 모든 에너지는 알맹로 되어 있다라고 主張하고 있음.

뉴튼力学에서는 電子는 한개의 질점으로 있으며 원자주위를 돌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는데 비해 量子力学에서는 電子는 한개의 질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全体空間에 퍼져 있으며 어느점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가를 確率的으로 본다고 설명

그리고 아이슈타인의 相對性 力学에서는 自然을 客觀的 實在이라고 말하면서 統計的 記述이란 있을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었는데 반해 量子力学을 내세운 「보아」는 自然이란 客觀的 實在이 아니며 自然法則과 物質의 運動도 統計적으로 分布 記述할 수 있을 뿐이라고 主張하고 있음.

또한 보아는 自然을 波動的으로 記述하면서 人間認識의 限界性을 인정하고 人間과 自然과 相互作用을 勘案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不確定性 原理를 主張했음.

이처럼 量子力学에 依하면 自然이란 어떤 角度로 보며 觀察하는가 하는 人間の 知性에 左右되는 것임.

電子에너지가 어느時間에 어느位置에 있는가를 同時に 알 수 없는바, 即 運動量과 位置를 同時に 알려면 不確定性原理에 結려 인식할 수 없음.

단지 運動量이든지 位置든지 하나만 測定하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음.

이렇게 볼때 量子力學은 人間과 自然과의 相互作用을 크게 중요시하며 自然運動의 因果法則을 認定하지 않고 統計적으로 物質運動을 記述함.

그렇다고 量子力學이 相對性 力學과 뉴턴力學을 全部 否定하는 것은 아니며 그 不足點을 補完하고 있는데에 不過함

- 맑스레닌主義는 뉴턴力學的 思考方式에 立脚하여 모든 物質은 必然的 法則에 따라 運動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北韓은 量子力學的 立場을 모르기 때문에 理氣互發性을, 모를 것이며 氣概念을 단순히 自然科學적으로 物質이라고 規定할 것이고,

그리고 뉴턴力學的 立場에 따라 因果法則을 主張할 것임.

그러나 物質이 절대 온도 0度에 이르러서는 정지狀態에 빠지며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物質의 운동이 빠를 수 있으나 그 速度도 限度가 있어 光速度 이상 빠를

수 없음.

따라서 物質은 自然은 自然科学的으로 볼때 無條件 다 運動한다고 主張할 수 없고 온도의 law limit (절대온도 0 度)와 光速度 한도 내에서 運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뉴턴力學的 思考方式에 立脚한 唯物論 哲學은 디렘마에 빠지게 됨.

한때 蘇聯의 스탈린은 量子力學과 相對性 力學을 主張하는 科學者들을 反動分子로 몰아 모두 다 쫓아 냈음, 그러나 1930 年代에 들어와 다시 그들을 불러드리고 量子力學을 許容했음.

그러나 北韓에서는 아직도 最新의 量子力學을 이해하지 못하고 氣一元論을 主張하고 있는 것 같음.

○ 人間과 自然과의 相互作用을 認定하고 있는 量子力學的 立場을 勸案하고 元曉와 退溪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理氣互發性에 立脚한 좋은 思想을 創立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 됨.

나. 綜合討議

(1) 韓民族의 傳統的 人間中心思想에 對해

(가) 朴俊弘 社會文化 研究官

○ 退溪, 栗谷, 花潭先生의 理氣論에 對해 說明해 주시고 그

特徵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北韓이 主張하듯이 花潭을 과연 唯物論者로 볼 수 있는지요?

(나) 柳正東 博士

○ 量子力學이 人間 知性의 限界를 인식하고 있으며 人間的 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상수 博士의 말씀에 對해 깊은 感銘을 받았습니다.

退溪先生이 理發氣隨之를 말씀하신것도 倫理的인 面, 人間的인 面을 重視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花潭이 主氣論을 主張했지만 그도 또한 思想의 頂上에 올라 자기가 지낸것이 참이라고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充分히 乘理있게 意味깊게 整理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北韓에서 主張하듯이 花潭을 唯物論者로 規定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 되며 그리고 退溪 栗谷이 理解하는 花潭이 과연 北韓에서 보는 唯物論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花潭은 現實的으로 共存하는 理氣問題는 充分히 理解하고

있으나 創造的인 理를 보지 못했습니다.

北傀는 花潭이 創造的인 理를 보지 못한 點을 念頭에 두고 唯物論者로 물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北傀가 栗谷을 退溪보다 높히고 花潭을 栗谷보다 높히는 까닭도 바로 이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北傀는 理乘之때문에 栗谷을 비난하고 있고 理發때문에 退溪를 度外視하는 것 같습니다.

(다) 朴俊弘 社會文化 研究官

- 0 北韓 朝鮮말 사전에서는 氣만 넣고 理字를 아주 削除하였읍니다.

(라) 林錫珍 博士

- 0 共產國內 少壯派 社會科學者, 哲學者 (게오르그루카치·에른스흐 불록호)들이 正統的 馬스主義에 修正을 加하려고 하다가 反黨分子로 물리게 된 것도 바로 人間의 創造的 個性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人間의 自發的 意欲, 自由로운 自發性이 完全히 抹殺되어 버리는 獨斷的 唯物論 理論이 人間社會에까지 完全히 그대로 適用되는 것을 學者의 良心에서 反對하고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退溪先生이 말씀하신 理概念의 本質的 意義란 바로 理의 創造的 活力性을 담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

기하신 柳正東 博士의 말씀에 깊은 感銘을 받았습니다.

現代 哲學思想史上 東西兩陣營을 막론하고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運動概念 卽 弁証法 運動概念과 관련해서 보면 理의 創造的 活力性이 바로 現代思想의 가장 中樞的 生命을 안고 있는 概念으로 理解됩니다.

儒教的 概念으로서 몇백년전 그당시에 이미 現代思想과 一脈相通하는 點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 金炯孝 博士

○ 花潭의 氣思想을 唯物論으로 보는것은 곤란하며, 간단히 얼렁뚱땅 넘어 갈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花潭이 말하는 氣思想은

첫째 普遍性으로서의 에너지

둘째 循環的 意味로서의 永遠性

셋째 神秘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解釈됩니다.

氣속에는 物質이 아닌 範圍가 있습니다.

北僞가 主張하듯이 氣가 物質이다 라는 教條的 解釈은 困難합니다.

退溪先生이 말하는 理는 宗教性이 매우 濃厚한 無尊無對의 지극히 높은 概念입니다.

理는 모든 宇宙를 잘 命令하고 宇宙에서 命令을 받지 아니하는 尊貴한 概念입니다.

理筭이 옳으나 그르냐는 쉽게 말할 수 없으며 哲學的으로 어렵습니다.

退溪論理가 栗谷에 依해 修正되고 栗谷以後 主氣論, 主理論으로 갈라졌습니다.

栗谷以後 人性과 物性(自然性)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問題가 性理學의 重要論爭이 되었으며 主理派는 人性과 物성이 다같은 宇宙의 普遍的 理이다 라고 말하며 人性物性の 同을 主張하였고 主氣派는 人性과 物성이 相異하다는 方向으로 흘러갔습니다.

韓末에 이르러 主理派는 義理와 精神을 강조하고 自主性을 고취한 衛正斥邪派로 나아가고 主氣派는 開化 實學派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主理, 主氣問題가 歷史意識을 위요하여 斥邪냐 開化냐하는 問題로 展開된 것입니다.

이 問題는 오늘날 이 時点에서도 大端히 深刻한 問題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南北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道德的 倫理的인 主理를 먼저 내세우느냐 아니면 實証的이고 科學的인 主氣的 立場을 取하여 西洋의 科學技術文明을 土台로 한 祖國近代化를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가 아직도 해결안되고 남아있습니다.

李朝性理學을 이러한 歴史的 脈絡속에서 評價하고 다른 社會科學과의 關係속에서 論해야 할것입니다. 衛正斥邪派의 主理的 立場도 一部分적으로 타당하고 開化實學의 主氣的 立場도 一部分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現代世界속에서의 韓國位置와 韓民族의 創造論理 探索에 對해

(가) 朴垞弘 社會文化 研究官

- 0 우리의 傳統思想(元曉, 退溪, 栗谷)과 西洋思想(헤겔)을 止揚 綜合하여 創造的 論理와 韓國統一思想을 定立함으로써 韓民族, 더 나아가 오늘날 人類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探索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民族의 傳統的 人間中心思想을 바탕으로 한 創造의 論理定立에 對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金炯孝 博士

- 0 創造論理에 對해서는 一貫性있게 이렇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歴史的으로 보면 創造가 일어나는 경우 반드시 모멘트(契機)가 있기 마련입니다.

韓民族에게는 오늘날의 이 時期가 思想的으로 學問的으로 創造가 움틀수있는 狀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韓國의 現 知識人사이에는 兪想法이 다른 두개의 主張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特殊性에 立脚하여 韓民族의 主体性を 강조하는 主張과 다른 하나는 西歐的 觀念에 立脚하여 普遍性を 강조하는 主張입니다.

西洋에서 英語, 仏語, 및 獨逸語의 言語論理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哲學과 自然科學이 있는 것처럼 東洋에도 漢字論理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自然科學과 哲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東洋에는 學問이 分科되어 있지 않습니다.

東洋哲學을 解釈만 하거나 數千年前의 東洋哲學을 解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創造가 있을 수 없고 아무 意味가 없습니다.

創造란 根本적으로 現代社會의 全般的인 普遍文化에 對한 正確한 理解下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땅의 여기와 지금의 經驗, 卽 特殊性을 普遍的인 記号로 表示(Transform) 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땅의 特殊한 經驗과 特殊한 与件을 全人類가 다 理解할 수 있는 普遍的 記号로 탈바꿈 하는것이 바로 創造의 論理가 되며 이것을 하는者가 훌륭한 哲學者이자 知識人입니다.

創造의 論理란 特殊素材(Particular Matter)를 普遍的인 Form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우리의 政治的, 社会的, 文化的, 軍事的인 特殊經驗을 普遍性과의 關聯下에서 正確히 理解하여야 합니다.

(다) 林錫珍 博士

○ 金炯孝 博士께서 現代世界속에서 우리韓國이 차지하고있는 어떤 獨特한 지금의 位置, 狀況을 土臺로하여 우리의 創造的思想 및 論理가 開發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原則的인 面에서 따져 볼 때 世界內에서의 우리의 問題란 바로 南北對決 狀況속에 있는 우리의 位置를 遠隔的인 第三者의 立場이 아니라 分斷의 어려움속에 있는 우리自身의 立場에서서 周邊問題를 하나 하나 擴大시키다가 解決해야 할것입니다.

現在 우리民族은 南北問題를 武力으로 解決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또한 武力으로 解決할 수도 없는 歷史的時點에 到達해있지 않나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武力으로 解決할 수 없으면 결국 和解論理로 解決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問題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和解條件을 提示해야 北쪽 사람들이 武器를 버리고 순순히 呼應해 들수 있을런지

北韓이 자기스스로 武器를 버리고 和解를 하자고 할리도

없고 정말 그 實現性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數千年前에 元曉大師가 和靜論理를 처음 着想 혹은 構想
하게 됐단 그 根拠를 보면 순수한 認識論的인 探究慾에
서 나온것이 아니고 實際의 仏敎 宗派間에 벌어지는 북
쪽의 투쟁을 지양하기 위한 一念과 實錢的 動機에서 出
發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元曉는 實社會에 발벗고 나서서 和靜論理를 이
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傳統文化와 思想을 土台로 하여 思想과
理念의 次元에서 北韓을 克服해 나갈 수 있는 方向과
和解論理를 提示함으로써 1,400 만의 同胞를 우리편으로
끌어 들여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問題는 和解論理를 내놓는다고 해서 역시 忠誠을
들고있는 北韓이 쉽게 同意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으로 和解論理를 내놓으면서 다른 한
쪽으로 그들 못지않게 武力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武力을 키우면서 同時에 다른 한쪽으로
和解論理를 提唱한다고 하는것도 어딘가 矛盾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그
렇다고 어느 한쪽을 가지고는 解決이 안되고 이들을 同
시에 들고 나온다고 해서도 解決이 안되는 dilemma에 빠
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矛盾된 兩者를 調和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和解論理에다 發展進歩思想을 加味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發展과 進歩의 論理가 뭐냐 하는것입니다. 이에 對한 解答을 아까 이상수 博士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회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수 博士께서는 現代에는 立証, 實証을 通해서 確認된 自然科學 이론을 바탕과 土台로 해서 思想과 哲學도 하고 그밖의 모든 生活問題를 解決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同感을 느낍니다

社會科學者 혹은 哲學者들도 現代적 觀點 즉 엄밀한 科學者 立場에서서 世界의 흐름을 생각하고 관찰해야 世界의 총체적인 표면과 深層에 걸친 모든 問題를 제대로 洞察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現在 北韓은 現代概念을 唯物弁証法이라고 이름을 부치고 있습니다.

唯物, 物質 爲主의 思想과 弁証法的인 運動 概念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正統적인 (Orthodox) 意味의 맑스 思想에 對해서는 研究조차도 되지않고 其實 禁惡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맑스이론에 관한 古典的인 書籍自体가 全혀 보급되지 않고있는 實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金日成의 한마디 言明이 떨어지면 数十万冊을 한時間만에
불살라 버리는 그야말로 秦始皇의 焚書坑儒 以上の 橫暴
를 마음대로 자행될 수 있는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社會가 바로 北韓社會인것 같습니다.

民族的 同質性을 確保하려고 하는 우리의 立場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注入式洗腦가 되어있는 1,400 만의 北韓住民에게 스며들수
있는 어떤 思想的 要素를 開發해서 불어 넣어주어야 하
는것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元旣의 和靜論理는 和解論理를 바탕으로 한 平和思想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이러한 偉대한 平和指向的인 傳統을
되 살려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平和, 和解論理만 가지고는 과감한 힘의 對決을
至上課題로 알고있는 北韓 사람들에게 제대로 스며들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平和指向的 傳統에 弁証法的 運動의 힘을
가진 發展의 論理같은것을 加味시키면 뭇인가 創造의 論
理가 定立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 白尙昌 博士

0 北韓社會의 性格과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에 對한 金日成個
人的 影響力은 絶對的입니다.

金日成은 一定한 原理에 따라 行動을 하는 者가 아니기

때문에 無論理의 論理가 바로 金日成의 論理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日成主体思想도 北韓人을 꼼짝없이 다스리기 爲한 道具에 不過 하여 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하고 있다는 主張에서 나타나듯이 金日成을 신바람적으로 기분나는데로 創造的으로 行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金炯孝 教授가 말씀하신 바와같이 北韓에서는 우리民族의 無意識的인 氣質인 신바람이 否定的으로 適用되고 있으며 眞正한 意味의 創造論理는 없는출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治療를 할 때 醫師와 환자와의 關係는 對決關係가 아니고 醫師가 환자를 救援해야 하는 關係입니다.

마찬가지로 大韓民國은 北韓을 救援해야 하는 關係이고 北韓은 救援을 받아야 하는 關係로 보고 싶습니다.

救援하는 우리의 立場을 볼것 같으면 저는 3가지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自身이 매우 健康한 狀態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自己自身이 弱點을 가지고 있으면 相對方 治療는 不可能한것과 마찬가지로 입니다.

大韓民國은 5,16後에 物質的 發展을 많이 했지만 精神的 側面에서는 어떤 意味로는 좀 不足한것을 否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精神的으로 肉体的으로 가장 건강하게 존재하면
北僞는 파고들어 올수 없을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5千万 全民族이 다 승복할 수 있는 새로
운 民族的 Moralism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精神的으로 健康해 나가야할 民族的 Moralism은 調和의
論理라고 생각됩니다. 元曉思想도 原則적으로 調和의 思
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精神과 肉体, 人間과 自然, 南과北, 男女의 調和를 여유있
는 휴머니즘立場에서 찾아야 할것입니다.

셋째는 家族倫理와 孝의 概念을 되찾아 脫家庭 現象을
막아야 합니다.

現在 北韓은 괴상한 형태의 脫家庭 狀態가 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妙하게 脫 가정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家族至上主義가 아니지만 家族和睦 概念은 社會安定의 기
본요소라 생각됩니다.

(마) 金炯孝 博士

0 民族의 宿願인 統一의 바탕과 戰略을 어떻게 構築하는가
하는것이 統一院의 使命으로 생각됩니다.

統一思想과 戰略에는 體와 用이 있는데 體는 흔들릴수
없는 어떤 正統性(Orthodox)을 말하는 것이고 用은
變法, 卽 狀況에 따라 臨機應變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統一을 하기 爲한 思想的 體는 「和解+ α 」의 論理라고
생각됩니다.

平面的으로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式의 和解만이 있을것이
아니라 + α 로써 지금의 東西 兩陣營과는 다른 새로운
祖國을 만들기 위한 發展的 余白을 남겨둬야 할것입니다.

그때는 經濟的으로 完全히 100% 資本主義도 아닌, 100
% 共產主義도 아닌 제3의 어떤 形態도 理念的으로 생
각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닥쳐올 새시대에 能動的으로 対処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統一韓國을 만들수 있는 知慧가 지금부터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不變의 體입니다.

統一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모든것은 지금의 우
리의 것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야만 통일이 됩니다.

다음에 用의 側面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白尙昌 博士님께서 精神 病理學的 立場에서 말씀했읍니다
마는 金日成은 狂人이기 때문에 그의 行動에 따라 臨機
應變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문제는 金日成이 자주 南侵을 할려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金日成의 敎條主義 밑에 노예가 되기 싫다는 그

런 自尊의 意志를 拳國的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國家의 防衛問題는 體的 問題라기 보다는 變法的인 用的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戰略의 問題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高度의 思想戰에서는 北韓이 자신이 없는것으로 이미 느끼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北韓科學者 論文 水準이 형편없듯이 北韓의 哲學사전을 보면 사전이 아니라 바로 金日成 語錄에 不週합니다. 그러한 環境속에서는 숨통이 막혀 도저히 살수없습니다. 이러한 水準을 가진 北韓哲學者가 南韓의 哲學者하고 이론대결을 하는 경우 고향을 지르고 흥분케 해서 욕설을 퍼붓는것 以外에는 도저히 이론적으로 답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高度의 이론과 思想文化에서는 아마 北韓이 金日成 主体思想을 가지고 南韓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北韓 自身이 스스로 느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用的 側面에서 北韓이 테러리즘으로 나올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南韓의 經濟가 發展되고 精神的 多樣的 文化가 생길수록 北韓은 점차 焦燥感에 빠져 테로의 방식에 依해 南韓을 혼란시키려고 할것입니다.

이에 對한 國家的 次元에서의 防備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個人 著名人士 테로문제는 無
防備 狀態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統一을 推進해 나감에 있어서 體와 用 卽 不變의
統一原理와 狀況에 따라 뱀처럼 슬기롭게 변할 수 있는
變法을 잘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널리 예지를 모아
야 할것입니다.

4. 對 備 策 (案)

4. 對 備 策 (案)

가. 統一院의 當面課業

- 大韓民國의 建國理念인 3.1民族精神을 平和統一理念으로 昇華發展시켜 理論적으로 體系化하고
 - 이를 精神的 求心點으로 하여 먼저 南韓國民의 精神的統一을 이룩하고
 - 더 나아가 金日成主體思想에 依해 洗腦되고 있는 北韓住民에 대해 깊은 無意識속에 흐르고 있는 民族의 얼을 回復시키는 데에 注力해야함
- 이것은 北傀權力層과 北韓住民을 分離 이간시키는 最初의 心理戰 方法이 될것임

나. 統一弘報 戰略

- 76年8月16日 스리랑카 非同盟中立國頂上會談을 契機로 하여 對內外的으로 金日成權力集團의 唯一思想 및 主體思想을 통한 民族兩分政策을 大大的으로 批判暴露해야함
- 大外的 弘報 戰略으로서는 現在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東歐 共產圈의 共產主義的 휴머니즘思潮를 活用하여 金日成의 盲目的인 革命鬭爭論理와 主體思想의 理論不在性을 北韓背後로 부터 批判이 惹起되도록 誘導해야함. 東歐共產圈의 現代修正主義思潮는 共產主義的 휴머니즘思想에 立脚하여 平和共存 論理를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 人間性重視라는 點에서 韓民族의 傳統的
平和論理와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음

이와같은 點을 弘報戰略面에서 積極적으로 開發 活用해야 함

- 傳統的 論理에 土台를 둔 大韓民國의 平和論理는 現代 世界
史的主流과 步調를 같이 하기 때문에 東歐共產圈의 眞正한
思想家들에 對해서는 깊은 說得力이 있을 것이며 그들로 하
여금 韓國傳統思想에 對한 研究心を 불러 이리킬 것임
이렇게 되는 경우 東歐共產圈內에서는 金日成 主体思想의
革命鬪爭論理와 非平和의 態度에 對한 批判이 必然적으로 強하
게 惹起될 것임
- 對外的으로 上記와 같은 狀況展開誘導과 더불어 對內的으로
3. 1 民族精神의 韓國的 로고스 定立 (다시 말하면 平和統一理念
定立) 에 對한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이와같은 精神的求心點
形成에 學界 言論界 및 文化界를 모두 參與시킴으로써 韓國
인테리로 하여금 歷史的 參與意識을 喚起시켜야 함
- 平和統一理念은 반드시 朴大統領閣下의 行動 철학 (새마을 정
신) 을 土台로 하여 定立되어야 하며 또한 平和統一理念定立
方法에 있어서도 어느 個人이나 統一院 단독으로는 그定立이
不可能하고 韓國知性人 모두가 參與하여 對話를 나눔으로써
그 定立이 可能해지며 이러한 理性的 對話方法⁷²⁾ (소
크라테스도 對話方法을 通해 眞理를 發見했으며

註72) 朴正熙 著, 民族의 底力 參照

이方法을 弁証法이라고 했으며 孔子도 退溪先生도 弟子들과의 對話方法을 통해 真理를 發見)을 통해 定立된 平和統一理念 이야말로 真正한 生命力과 實踐力을 갖게됨

- 現代社會는 大衆市民社會이기 때문에 一個人의 天才的思想家가 아무리 훌륭한 기발한 사상을 定立하더라도 國民多數의 理解를 얻지 못하면 空念에 그치고말며 其實 現代社會의 性格으로 보아 오늘날 韓國社會의 精神的求心點(혹은 思想體系)은 韓國知性人 모두가 共同으로 參與함으로써 그定立이 可能해 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白馬를 타고오는 天才的思想家(元曉나 退溪와 같은 個人思想家)를 期待할것이 아니라 韓國知性人 모두가 스스로 元曉나 退溪가 되어야 하겠다는 共同意志가 結實되어야 平和統一理念의 定立이 可能해 진다는 것임

- 이처럼 韓國內部에서 새로운 思想(平和統一理念)의 胎動 雰圍氣가 形成되면 이것은 同時에 對外的으로 平和統一의 主導權을 掌握할수있는 契機를 形成시킴 73)

註 73) J. Rosenau Linkage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69 參照